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한 명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신인숙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sk Make-up techniqu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sque in both Korea and China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한 명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신인숙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sk Make-up techniqu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sque in both Korea and China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한 명

한명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	인
심사위원 _	인
심 사 위 워	ó]

국 문 초 록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한 명

가면극은 연희자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무속 놀이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서구까지 알려진 하회탈춤과 황해도 최고의 봉산탈춤을 선택하였고, 중국에서 3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례(儺禮)에서 발전된나희(儺戲) 및 중의학과 중국화과 더불어 중국의 3대 국수(國粹)로 불리는 경극을 선택하였고 중국과 한국의 4가지 전통 가면극의 비교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인접하여, 고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서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 두 나라의 가면극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 이두 나라의 가면극을 비교분석하는 필요성이 있다. 최근 가면극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성과도 있지만 실질적인 양국비교에 대한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가면극을 비교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가면극에 관련된 국내외 서적, 선행연구 등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연구를 진행하여 전반적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았고, 양국 가면극의 색채, 의상, 무대 등 한국과 중국 가면극이 지닌 전통적 특성의 유사성과 차별성 살펴본 후 가면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하회탈춤과 봉산탈춤의 연희자들은 가면을 쓰고 주로 불교의 귀의한 것, 양반에 대한 모욕, 파계승에 대한 풍자, 남녀의 갈등 등에 대한 것을 표현하였다. 가면의 조형속 분장에는 특정계급 내부의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선택되어 한 인물 속에 압축됨으로써 강력하게 전형화되었다.

중국의 나희에서 정신가면(正神假面)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자애로운 사실적 분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흉신가면(凶神假面)은 사람에게 사납고 위험이 있는 용맹스러운 느낌을 나타날 수 있는 가면들이다. 그리고 좌우 비대칭의 바보스러운 축각 세속인물도 나타난다.

경극은 생(生), 단(旦), 정(淨), 축(丑) 4대 행당(行當) 남자 배역의 생과 여자 배역의 단 '미화화장'으로, 성격파 배역 정과 어릿광대 배역 축은 '성격 분장'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통색은 고대 중국에서 발생된 음양오행설을 따르는 공통점이다. 단 중국 경극 색채도가 높은 원색이 많이 사용되며 한국의 색채도 중국 경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박한 자연색이 많이 사용된다.

셋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의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나 중국의 가면 극 복식의 기능 다 동장인물의 성격, 계급, 인격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 화회탈춤의 의상은 수수한 평상복 차림이고 한국 봉산탈춤 의상의 색채는 하회탈춤보다 상대적으로 화려하다; 중국 경극 의상의 형태, 문양, 색채 등 전부 나희의 의상보다 더 예술적이다. 단 중국 나희의 의상을 통해 신을 불러 청하고 귀신을 쫓는 의사소통의 의미가 가지고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무대를 분석 결과는 한국이나 중국의 가면극 무대는 야외에서 설치할 수 있고 무대 조명 등 특별한 장치 없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성은 한국 가면극 무대는 다차원적 지형과 사방을 둘러싼 관객의 전면적 시선이 가능하지만 중국 경극의 무대는 관객들이 삼면을 관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국 나희는 고정유동복합형태로 설

치한 무대가 있어서 한국가면극이나 중국 경극 무대 설치한 형식보다 더 다양하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가면분장 표현기법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향 제안을 창출하였다.

【주요어】가면극, 하회탈춤, 봉산탈춤, 나례와 나희, 경극, 분장표현기법, 색채, 의상, 무대, 분장 제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내용 및 방범	
제 2 장	역사적 고찰	3
	한국 가면극의 기원과 발전 회탈춤의 역사	
	산탈춤의 역사	
	중국 가면극의 기원과 발전	
	국 나례와 나희의 역사	
2. 중	국 경극의 역사	25
제 3 장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분장 분석	30
제 1 절	한국 가면극의 분장	30
	·회탈춤의 분장 ·····	
	-산탈춤의 분장	
	중국 가면극의 분장	
	·희의 분장 ·····	
2. 경]극의 분장······	51

제 1 절	색채 71
제 2 절	의상 75
제 3 절	무대83
제 5 장	비교분석을 통한 분장 표현기법 제안의 관한 연구 사례 "88
., 0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제 1 전	한국 가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88
	국 하회가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88
2. 한 -	국 봉산가면을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92
제 2 절	중국 가면극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100
1. 중	국 나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100
2. 중	국 경극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104
제 3 절	한국과 중국 가면을 결합한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 108
제 6 자	결 론120
AII 0 8	· 글 · 근 120
【참고문학	원 】 123
	CT 126
AD21KA(∪1 ····································

【표목차】

[표 3- 1] 양반탈 선비탈	• 32
[표 3- 2] 초랑이탈 이매탈	• 34
[표 3- 3] 중탈 백정탈	• 36
[표 3- 4] 할미탈	• 37
[표 3- 5] 상좌탈 목중탈	• 38
[표 3- 6] 첫째 소무탈 둘째 소무탈	• 39
[표 3- 7] 노장탈 맏양반탈	• 40
[표 3- 8] 둘째 양반탈(서반님) 셋째 양반탈(도련님)	• 41
[표 3- 9] 미얄할미탈 미얄영감탈	• 42
[표 3-10] 선봉소저 당씨태파 토지신	··· 46
[표 3-11] 화상신	• 46
[표 3-12] 개산망장 개로장군 령관	• 48
[표 3-13] 구원판관	• 49
[표 3-14] 감생팔랑 진동	• 51
[표 3-15] 연로구	··· 51
[표 3-16]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 58
[표 3-17]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 59
[표 3-18]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 60
[표 3-19]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 61
[표 3-20]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 62
[표 3-21] 검보 눈썹	• 67
[표 3-22] 검보 눈썹	• 68
[표 3-23] 검보 눈썹	• 68
[표 3-24] 검보 안와	• 70
[표 4- 1] 하회탈춤 등장인물 의상	• 76
[표 4- 2] 봉산탈춤 등장인물 의상	• 77
[표 4- 3] 하북 무안 나희의 문복	• 79

[표	4- 4]	경극	의상	형식 분류	81
[丑	5- 1]	한국	하회	부네가면 작품 모티브	89
[丑	5- 2]	한국	하회	부네가면 작품 일러스트	90
[표	5- 3]	한국	하회	부네가면 작품제작	91
[표	5- 4]	한국	봉산	사자가면 작품 모티브	93
[莊	5- 5]	한국	봉산	사자가면 작품 일러스트	94
[표	5- 6]	한국	봉산	사자가면 작품제작	95
[표	5- 7]	한국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 모티브	97
[표	5- 8]	한국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 일러스트	98
[표	5- 9]	한국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제작	99
[표	5-10]	중국	나면	작품 모티브]	101
[표	5-11]	중국	나면	작품 일러스트 1	102
[표	5-12]	중국	나면	작품제작 1	103
[표	5-13]	중국	경극	검보 마무 작품 모티브 1	105
[표	5-14]	중국	경극	겁보 마무 일러스트 1	106
[표	5-15]	중국	경극	검보 마무 작품제작	107
[표	5-16]	한국	하회	양반가면과 중국 검보 주온 작품 모티브 1	109
[표	5-17]	한국	하회	양반가면과 중국 검보 주온 작품 일러스트 1	110
[표	5-18]	한국	하회	양반가면과 중국 검보 주온 결합한 작품제작 1	111
[표	5-19]	중국	경극	검보 공선과 한국 봉산 취발이가면 작품 모티브… 1	113
[표	5-20]	중국	경극	검보 공선과 한국 봉산 취발이가면 작품 일러스트 1	114
[표	5-21]	중국	경극	검보 공선의 색깔을 응용한 한국 봉산 취발이가면 작품져	ll각
••••	•••••	••••••	•••••		115
[표	5-22]	중국	경극	검보 이규와 한국 하회 선비가면 작품 모티브 1	117
[표	5-23]	중국	경극	검보 이규와 한국 하회 선비가면 작품 일러스트… 1	118
[표	5-24]	중국	경극	검보 이규와 한국 하회 선비가면 결합한 작품제작 1	119

【그림목차】

〈그림	2- 1>	조개 탈	6
〈그림	2- 2>	목심칠면	7
〈그림	2- 3>	나무로 된 방상씨 탈	7
〈그림	2- 4>	추용가면	10
〈그림	2- 5>	하회탈춤 신방마당	13
〈그림	2- 6>	하회동 전경	14
〈그림	2- 7>	각시가면	15
〈그림	2- 8>	부여금동보살입상	15
〈그림	2- 9>	산탈춤의 사당 춤 과정	17
〈그림	2-10>	봉산탈춤에서 할미의 죽음 후에 무당이 거행하는 굿	17
〈그림	2-11>	영화"매란방"	29
〈그림	2-12>	영화"패왕별희"	29
〈그림	4- 1>	음양오행사항	72
〈그림	4- 2>	하회탈춤 할미	73
〈그림	4- 3>	하회탈춤 중	73
〈그림	4- 4>	봉산탈춤 취발이(좌)소무(우)	73
〈그림	4- 5>	홍색 나당	74
〈그림	4- 6>	하회탈춤 부네	76
〈그림	4- 7>	하회탈춤 선비(좌) 백정(우)	76
〈그림	4- 8>	봉산탈춤 소무	78
〈그림	4- 9>	봉산탈춤 사자	78
〈그림	4-10>	봉산탈춤 먹중	78
〈그림	4-11>	무안 나희 의상	80
〈그림	4-12>	망	80
〈그림	4-13>	봉산탈춤 무대	84
(기리	4-14>	하부 무아 나히 여초 근디맨	8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면극은 연희자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음악, 대사 등과 함께 연희하는 종합예술이다. 무(巫)들이 귀신과 재앙을 쫒고 복을 빌기 위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 가면극의 기원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양국 모두 한자 문화권에 속에 있는 공통적인 배경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두 나라의 가면극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동일한 기원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깊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성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의 가면극을 비교분석하는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 가면극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로 한국의 하회탈춤, 봉산탈춤과 중국의 나희, 경극 4가지를 선택하여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하회탈춤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탈춤 중 기원을 가진 전통 민속극으로써 현재 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그 탈춤에 쓰인 가면은 그 우 수성과 조형성으로 이미 서구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으 며 현재 국보 121호로 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봉산탈춤은 북부 황해도 지역에서 최고 탈춤이다.

나희는 35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례에서 유래하고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재앙을 쫓으면서 복을 비는 무교적인 제의에 대한 연극적 놀이이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나희공연은 오락성을 띄고 있어 민중들이 좋아하는 희극이 되었다. 경극은 중국 대표적인 민중극으로 극본, 연, 춤, 음악, 노래, 소도구, 분장, 의상 등 가진 종합무대예술이다. 경극과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가면극은 얼굴에서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얼굴에 가면을 쓴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극 검보(臉譜)의 형태, 색상, 의미, 표현기법 등 가면극과 유사해서 본 논문에서 경극도 가면극의 하나

로 간주한다.

최근에 가면극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비교연구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이 많지 않으 며,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가면극을 비교분석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 성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가면극에 관련된 국내외서적, 선행연구 등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참고하며, 이것을 통해 분장 표현기법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원시적인 공연예술의 탄생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 하회탈춤을 대표하는 양반탈, 선비탈, 초랭이탈과 봉산탈춤에서 나오는 취발이, 양반, 말뚝이 등 역할의 지위, 직업부터 쓴 가면의 재질, 크기, 눈, 코, 입 등 구체적인 가면분장 분석하였다; 중국의 나희의 성격에 따라 나누는 정신가면(正神假面), 흉신가면(凶神假面), 세속인물가면 및 각 등장가면의 분장과 조형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경극은 생(生), 단(旦), 정(淨), 축(丑) 4대 행당(行當) 남자 배역의 생과 여자 배역의 단은 '미화화장'으로, 성격파 배역 정과 어릿광대 배역 축은 '성격분장'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였고 특히 정, 축의 역할에 쓰이는 검보에 대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의 하회탈춤, 봉산탈춤과 중국의 나희, 경극의 무대, 의상, 색채 등 전통적 특성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하회탈춤, 봉산탈춤, 중국의 나희는 소박하고 단순한 특징 있는 반면에 중국 경극은 장대하고 화려한 특징이 있음을 요약 할 수 있다.

넷째, 비교분석을 통한 분장표현기법 제안에 관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역사적 고찰

제 1 절 한국 가면극의 기원과 발전

1. 한국 탈춤의 기원

가면을 우리말로「탈」또는 「탈바가지」라고 하고 가면무는「탈춤」, 가면 극은「탈놀이」, 가면극무대는「탈판」, 가면희 연희자를「탈꾼」이라고 부르는 등의 용례를 볼 수 있다.1) 한국의 탈은 상고시대의 원시종교 의식부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인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나 동물의 초자연적 능력과 힘을 빌어 주술을 행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초자연적 능력을 빌기 위해 가면을 쓴 체 춤을 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의해 가면은 필수적인 무속물이 되었다. 고대에 가장 성행되었던 탈춤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제시되었는데 크게 구분하면 산대희기원설, 기악기원설, 풍농굿기원설, 무굿기원설 등이 있다.

산대희기원설(山臺戲起源說)에 의하면 산대희에서 산대극(산대도감극)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산대희는 신라시대이래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가설무대인 산대(山臺) 위에서 산과 같이 높은 무대에서 베풀어진 놀이이다. 조선시대 산대희에는 규식지희(规式之戱)와 소학지희(笑谑之戱)가 존재하였다. 규식지희는 주질(注叱, 줄타기), 농령(弄鈴, 방울받기), 근두(斤頭, 곤두박질), 토화(吐火, 불 토해내기), 만연어룡지희(曼衍魚龍之戲, 가면춤의 일종) 무동춤, 곰놀이, 섭독교(攝獨橋), 인형극, 장간희(長幹戲, 솟대타기), 사자춤, 호랑이춤, 만석중춤 등 곡예와 각종 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2) 소학지희는 즉흥적인 재담이나 화술로써 행해지는 소극(笑劇)이다.

기악기원설에 의하면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612년 남중국 오 (吳) 에서 배워 일본으로 전파한 가면극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관한 기록은 13세기 일본 문헌인『교훈초 (教訓抄)』(1233)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불사

¹⁾ 이두현. 『한국 가면극』.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47.

²⁾ 전경욱.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일화당, 1998. P.120.

(佛事)를 공양하기 위한 무곡으로 연출되던 묵극이라 본다. 기악의 소도구, 가면의 형태와 색깔, 인물의 구실, 무용극 요소, 주제 등 양주별산대놀이나 봉산가면극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서 서역 계통으로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일본에 전한 기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조동일에 의하면 풍농굿기설은 농경의례에서 마을굿의 형태로 진행된 풍농 굿으로써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농악대가 풍물을 치면서 노는 놀이가 발 전해 농촌탈춤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굿은 악기를 울리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행사로서,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소란하게 떠드는 것이 특징이며 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때 소수의 담당자만 조용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며 또한 여러 가지 금기가 따르는 특징이 있다. 가면극은 농촌탈춤과 도시탈춤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풍농굿기설은 산대회설과 기악기원설이 모두 상층 문화에서 하층문화로 이행한다는 침강문화재설(沈降文化財說)에 따른 것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며 굿은 고대에는 상하층의 공동 행사였으나, 상하 층의 문화가 분리된 뒤에 형성된 민중예술이라고 본다.

무굿기원설은 박진태가 주장한 것으로 농사를 끝낸 뒤에 신을 즐겁게 하는 단순한 무당의식에서 점점 복잡한 가무가 발달해서 가면극이 된 것이라고 보고있다. 하회별신굿탈춤은 각 과장의 내용은 무굿과 대응되며 각 과장의 연희 절차는 일치한다는 견해를 표방하고 있다.

2. 시대적 변천

1) 원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부산광역시 동삼동에서 출토된 기원전 5천년쯤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조개탈은 우리나라 실물탈로 조개껍질에 두 개의 눈과 하나의입을 뚫어 만들어진 탈이다. 이 탈의 기능이나 성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원시시대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라할 수 있다. 〈그림 2-1〉



〈그림 2-1〉³) 조개 탈

고구려 고분군 벽화는 그 규모가 웅장한데 이 곳에 당시 고구려인들의 여러 가지 놀이들이 그려져 있다. 이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약 제3호분 동수묘(冬壽墓)의 벽화 중 후실리 무약도(舞樂圖)로써 외국인으로 보이는 춤꾼이 가면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 춤꾼의 가면은 콧대가 유난히 크고 높으며 다리를 x자로 꼬고 있는 형상을 보이는데 중국의 나희의 탈과 비슷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백제의 탈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일본의 한 문헌에는 기악(伎樂)은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중국 남조(南朝) 오(吳)에서 배워 612년 일본에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악의 내용은 13세기 (1233년) 일본 문헌인 『교훈초(教訓抄)』에 소개되어 있는데, 절에서 불사(佛事) 공양의 무곡(舞曲)으로 연출되던 교훈극으로 묵극(默劇)이 었다.4) 기악은 사자무로 전승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하회별신굿 가면극의 주지춤에 가장 가깝고 한일 양국 연극사의 발달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5~6세기 사이의 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경주(慶州) 호우총 (壺杅塚)에서 출 토된 목심칠면(木心漆面)은 나무로 만들어진 탈인데 눈알에는 유리가 있고, 두 눈에는 황금환을 둘렸으며, 두 개의 뿔이 나와 있지만 부식이 심해서 그 모양을 상세하게 볼 수 없다. 〈그림 2-2〉이 탈은 악령으로 부터 죽은 사람 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묻은 것이다. 그러므로 목심칠면은 중국의 나례에서

³⁾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1999.

⁴⁾ 전경욱. 앞의 책. p.105.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구나신(驅儺神) 방상씨(方相氏) 탈의 일종인 기 (供)탈로 생각된다. 〈그림 2-3〉





〈그림 2-2〉5) 목심칠면(木心漆面) 〈그림 2-3〉6) 나무로 된 방상씨 탈

그리고 신라의 가면극 관계 놀이에는 가무백희(歌舞百戲)와 황창무(黃昌舞) 등 있다. 가무백희라는 용어는 『삼국사기』 권1 신라 유리이사금(儒李尼士今)9 년(기원후 32년)「가배(嘉俳)」조에 처음 보이고、『문헌비고(文獻備考)』에도 진흥왕 12년(기원후 551년)에 처음 설치한 팔관희(八關會)에서 가무백희를 놀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가무백희는 바로 산악잡희와 같은 놀이들로 추정 된다.7)

황창무, 즉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검무이다. 다조선조 형종 때 경주 부사 민주면(敏周冕, 1692-1670)이「구동경지(舊東京志)」를 증보, 간행한「동경 잡지(東京雜記)」〈풍속〉조와『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면 신라의 황창 (黃昌) 이라는 일곱 살 소년이 검무를 빙자해 백제의 왕을 죽이고 백제인들 에게 피살되었는데, 이를 신라의 왕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슬퍼해 하였고 그 모습을 가면으로 만들어 쓰며 서로 위로하고 그의 춤을 모방해 검무를 추었 다는 내용의 유래가 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 탈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중 최지원(崔致遠)의 「향악잡영(響樂雜詠)」에 묘사된 오기(五伎), 즉 금환(金丸), 월전(月顚), 대

⁵⁾ 이두현. 앞의 책. p.1.

⁶⁾ 심우성. 『탈』. 서울: 대원사, 2000. p.53.

⁷⁾ 전경욱. 앞의 책. p.105.

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의 다섯 가지 놀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금환(金丸) 몸 돌리고 팔 휘둘러 방울 놀리니 달이 구르고 별이 뜬 듯 눈이 어지러워. 의료 같은 재주인들 이보다 나으냐 동해바다 파도소리 잠잠하겠네.
- 월전(月顯) 어깨는 솟고 목은 움칠 꼭다리 오뚝 여러 한량 팔 비비며 술잔 다툰다. 노랫소리 듣고나서 웃어 젖히며 초저녁이 지새도록 깃발 붐빈다.
- 대면(大面) 누린 금빛 가면을 썼다 바로 그 사람 방울채를 손에 쥐고 귀신을 쫓네. 자진모리 느린가락 한바탕 춤은 너울너울 봉황새가 날아드는 듯.
- 속독(東泰) 쑥대머리 파란 얼굴 저것 좀 보소 짝 더불고 뜰에 와서 난새춤 추네. 장구소리 둥둥둥 바람은 살랑사랑 사뿐사뿐 요리 뛰고 저리 뛰누나.
- 산예(狻猊) 먼 사막을 건너 만리길을 오느라고 털옷은 다 찢어지고 먼지를 뒤집어어썼네. 머리 흔들고 꼬리 치며 어질게 노니 온갖 짐승 재주 좋다한들 이와 같으랴.8)

금환은 금을 칠한 죽방울을 공중에 여러 개 던졌다가 받는 놀이이다. 월전은 구경꾼들의 반응을 통해 경희극의 일종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면은 황금색 가면을 쓴 사람이 구슬 채찍을 들고 귀신을 쫓는 무서운 춤

⁸⁾ 최치원. 『삼국사기』. 「잡지」. 〈향약잡영오수〉(鄉樂雜詠五首) 金丸, 廻身掉臂弄金丸 月轉星浮滿眼看 縱有宜僚那勝此 定知鯨海息波瀾 月顛, 肩高項縮髮崔嵬 攘臂群儒鬪酒盃 聽得歌聲人盡笑 夜頭旗幟曉頭催 大面, 黃金面色是其人 手抱珠鞭役鬼神 疾步徐趨呈雅舞 宛如丹鳳舞堯春 束毒, 蓬頭藍面異人間 押隊來庭學舞鸞 打鼓冬冬風瑟瑟 南奔北躍也無端 狻猊, 遠涉流沙萬里來 毛衣破盡看塵埃 搖頭掉尾馴仁德 雄氣寧同百獸才

이다.

속독은 원방인(遠方人)이 왕의 덕화를 사모해 떼지어 와서 춤과 음악을 바치는 내용인데, 가면은 쑥대머리에 파란 귀면을 쓰고 기이한 얼굴로 무리를데리고 추는 춤이다.

산예는 사자가면을 쓰고 고개와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대면과 산예는 귀신을 퇴치(退治)시키는 벽사탈이고, 속둑은 '왕화(王化)를 사모하여 떼지어 와서 무악(武樂)을 바치는' 원방인을 나타내는 귀면형(鬼面型)탈로써, 대면은 황금색이고 속독은 남색(藍色)이었다. 대면과 속독은 각각 서역의 구자(龜茲)와 속특(粟特)에서 발생하여 당나라를 거쳐 신라에 전래되었으며, 산예 곧 사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서역과 당을 거쳐 신라에 전래되었다.9)

한편 처용무(處容舞)는 『삼국유사(三國遺事)』권2「처용랑(處容郎)망해사(望海寺)」조를 통해 그 유래를 알 수 있듯이, 신라 헌강왕(賢康王)(857~886년 재위)대의 처용설화에 의하면 처용이 밖에 나가 밤늦도록 놀다가 집에서들어오는데 역신이 처용의 처를 범하는 것을 보고 처용이 〈처용가〉라는 향가를 부르며 춤을 췄더니 역신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물러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문에 붙여 사귀(邪鬼)를 물리쳤다고 유래한다. 처용무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궁중 나례(傩礼)에서 가면을 착용하고 병이나 재앙을 쫒아내고 선(善)을 맞히는 기능을 계승하는 가면무이다. 〈그림 2-4〉



〈그림2-4〉10) 추용가면

⁹⁾ 이두현b.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79. pp.62-64.

2) 고려시대

고려의 문화에는 불교가 주도를 이뤘으며 불교적 제전인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다. 팔관회는 태조 초부터 시작되어 성종 때 일시 정파되었고 현종 때다시 부활된 중경과 서경에서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의식이다. 국가적인중요한 행사로서, 중경에서는 술과 다과를 베풀고 채산(彩山) 또는 채봉(彩棚)이라 하는 가설무대(山臺)를 설치하고, 가무와 백희를 베풀고 가무백희로왕실의 태평과 안녕을 빌었으며 이러한 국가의 행사를 통하여 군신이 동락하고 일반 평민까지도 즐겼었다. 가무백희의 내용은 중국의 산악백회의 영향을반아 장행의〈서경부(西京賦)〉에 의하면"扛鼎" "綠桿" "鉆圈" "跳丸劍" "줄타기" "魚龍變化" "불 토해내기, 칼 삼키기" "劃地成川" 등 여러 신기한 잡기와 가면극이 있다. 채봉은 오색비단 장막과 같이 나무로 만든 장식무대이다.여기에서 연행된 놀이를 산대극이라고 하고 여러 종류의 탈이 사용되며 교방가무희에서 처용가면을 사용하고 나례에서도 방상씨 및 창상탈을 사용하였다.나례는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공중이나 민가에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일정한 규식 차례에를 하고 주축을 외치면서 춤을 추고 악귀를 쫓아내던 주술적병사의식이다.

고려 말에는 나례 점차 구역의식에만 그치지 않고 잡희부가 확대되면서 관중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 즉 나례가 나희로 변했다. 고려 말 문헌자료인 이색(李穡,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에 있는 대나(大儺)를 옮은 한시〈구나행(驅儺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구나행〉은 모두 28구 196자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1구~14구)는 종교의 행사를 읊은 것으로 가면을 쓴 입이지신과 진자(長子)들이 역귀를 쫓은 의식을 묘사하였고, 후반부(15구~28구)는 구나의식이 끝나고 악공들이 입장하여 가무백희를 상연하는 차례로 읊고 있는 내용이다. 후반부에서는 무오방귀(五方鬼舞), 사자무(獅子舞), 처용무, 서역의 호인무(胡人舞)와 불토해내기(吐火), 칼 삼키기(吞刀), 각종 동물로 분장한 가면희 등 각종 잡희를 연행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의 나가 완전히 나희(儺戲)로 발전하였음

¹⁰⁾ 최장수. 『한국 가면의 연구. 성문각, 1984. pp.77~108.

을 알게 된다.

오방귀(五方鬼) 춤추고 사자(獅子)가 들 뛰며 불을 뿜어내기도 하고 칼을 삼키기도 하네. 서쪽 하늘의 정기인 오랑캐가 있는데 검기도 하고 누렇기도 한 얼굴에 눈은 파란 불빛이네. 그 중의 노인이 등은 구부정하면서도 키가 큰데 여러 사람들 모두 남극성(南極星)이 아닐까 놀라고 감탄하네. 강남의 장사꾼은 오랑캐말 씨부렁거리며 나아갔다 물러났다 가볍고 빠르기 바람 속의 반딧불 같네. 신라의 처용은 칠보 장식을 했는데 머리 위의 꽃가지에선 향기로운 이슬 떨어지네. 긴소매 이리저리 흔들며 태평무를 추는데 불그레히 취한 얼굴은 아직도 다 깨지 않은 듯. 누런 개가 방아 찧고 용은 구슬 다투고 온갖 짐승 더풀더풀 춤추니 요임금 시절 궁정 같네.11)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방귀무, 백택(白澤), 남극성노인은 중국계통의 탈이고, 흑색탈과 황색탈은 서역계통의 탈이다. 또한 처용은 신라의 탈이고, 누렁래와 용은 인형이다. 불 토하기 칼 삼키기는 곡예로 가무백희(歌舞百戲)는 여러 계통의 탈춤들과, 그리고 인형놀이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탈은 악귀를 내쫒는 나신(儺神)들로 벽사탈이고 인형놀이는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12)

한편『고려사(高麗史)』권 제124「전영보(全英甫)」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충숙왕(忠肅王)이 원나라에 체류할 때에 심왕(沈王)고(暠)가 왕위를 빼앗아 보려고 모략했고 간신들이 이와 결탁했다. 충숙왕이 박인평(朴仁平)을 보내어 재상들에게 전달하기를 "옛날에 작은 광대가 큰 광대를 따라서 강을 건너가는데 나룻배가 없었다. 그때 작은 광대가 여러 큰

¹¹⁾ 이색 (李穡: 1328-1396)의 〈구나행(驅儺行)〉舞五方鬼踊白澤 吐出回祿吞青萍. 金天之精有古月 或黑或黃目靑熒 其中老者傴而長 衆共驚嗟南極星. 江南賈客語侏離 進退輕捷風中螢. 新羅處容帶七寶 花枝壓頭香露零 低回長袖舞太平 醉臉爛赤猶未醒. 黃犬踏碓龍爭珠 蹌蹌百獸如堯庭.

¹²⁾ 이나영. 「한국의 전통적 탈에 관한 조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0.

광대에게 말하기를 '나는 키가 작아서 물의 깊이를 알기 어렵다. 그대들은 키가 크니 앞서서 수심을 재어 보라!' 고 하니 모두 다 그렇게 하자하고 물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고 작은 광대 만 남았다. 지금 우리나라에 작은 광대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영보와 박허중(朴虛中)이다 나를 위험한 곳에 두고 태연하게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니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우리나라 말로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 자를 광대라 한다.13)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 사람을 광대(廣大)라고 불렀다는 편자(編者)의 설명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민간에 전문적 으로 가면을 사용하고 노는 가면극이 있었고, 그 전문적 놀이꾼을 광대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오랜 전통적 권력을 가졌던 불교는 유교의 의해 배척되고 산대잡희와 나례는 고려조의 것을 계승하여 성행하였으나 전조의 팔관회, 연등회 등 의식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 들어 나례도감 또는 산대도감을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거나 동계 나례때, 祈廟還宮, 宗廟新祭 渴聖, 안태, 進豐呈, 內作物 지방장과 환영, 安樂觀娛때 폭넓게 연희되었다. 조선시대의 계동나례는 흉년 기타의 有故時에 정차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정례적으로 매년 설날 그믐날 밤에 거행되었으며, 역신을 쫓아내는 축역외에 잡희인 나희가 공연되었다. 이러한 나희는 중국 사신의 영접 행사와 조성의 각종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되었고, 조선 선기 전에는 국가 신흥의 기운과 함께 그 규모도 성대해졌다. 그러나 임진, 병자, 양란 후에 이조는 쇠운에 접어들어 인조(1623~1649)이후는 나례 축역행사 정도로 그치고 차차쇠퇴해 졌으며, 명 청의 교체 이후는 崇明排清의 사조와 함께 청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의 산대잡희도 열의가 감소되고 왕년의 盛觀은 없어져 영조 (1725~1776), 정조(1777~1800)시대 이후는 정지되고 말았다.14) 그리고 조선

^{13) 『}고려사』. 제124권, 忠肅之留元也 瀋王暠謀3奪王位 奸臣交構 王遣朴仁平 謂宰相曰 昔有小廣大隨大廣大 渡水無船 謂諸大廣大曰 我短小 難知深淺 君輩身長 宜先測水 咸曰 然 入水皆溺 獨小廣大免 今有二小廣大在吾國全英甫朴虛中是也 置我禍網 晏然坐視 何以異此 國語假面爲戲者 謂之廣大.

의 양반 관료적 사회 체질이 계속되면서 점점 모순이 드러나게 되고 우인들은 특정한 일을 있을 때만 정부로 부터 경비를 받았을 뿐 평소에는 떼를 지어 곡식을 빌고 생계를 세웠다.

순조24년(1824)에 제출된 「完文等狀八道才人」과「八道才人等 等狀」에 의하면 여러 판소리 공대들도 근본적으로는 나례優人이며 俳優로서 산대극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광대란 말이 당초에 가면을 뜻하고, 다음으로「가면為 戲者」를 뜻하다가, 俳優자체의 신분의 칭호로서 특히 가객을 부르기에 이른 것과 대용된다 하겠다. 앞서 경도잡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광대는 가객인 「광대」와 줄타기, 땅재주 등을 하는 「재인」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물론 조선후반기로 내려오면서 보이는 분류현상이었다.15)

대표적인 가면극인 산대잡희, 조선조의 재인광대, 현재 산대도감가면극의 내용은 몰락한 양반과 무당, 거사와 기타 평민들의 등장을 통하여 양반과 승려의 특급계급에 반항과 웃음을 보여주고, 호색과 처첩의 삼각관계 및 남녀차별을 풍자하는 것이다. 이 민속 가면극이 상연한 시기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음력 사월초 파일, 오월 단오, 팔월 추석 등 명절이나 또한 경사, 기우제 위주로 수시로 상연 되었고, 상연한 시간은 제한이 없이 보통 밤 열시 경에 시작하면 동틀 무렵 끝마치는 것이다.

1. 하회탈춤의 역사

하회탈춤은 경복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에서 전해져오는 탈춤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춤이다. 이 탈춤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아 볼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기는 고려시대라 추정되고 있다. 그 시기를 고려시대라 추정하는데 있어서 이 탈춤이 다른 탈춤보다 고대적 분위기를 갖고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이 탈춤이 허도령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더 당당하다고 할 수 있다.

허도령이라는 총각은 꿈에서 신설을 만나 가면을 제작의 명령을 받고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목욕재계 후 세속적인 생활을 피하며 매일 가면 제작에 힘

¹⁴⁾ 이두현. 앞의책.p.130.

¹⁵⁾ 위의 책. p.134.

을 기울였다. 그런데 당시 허도령을 몹시 사모하는 마을의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처녀는 사모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허도령이 일하는 방의 창구멍을 뚫고 슬며시 허도령을 홈쳐 보았다. 그 순간 신의 뜻에 부정을 타게 되고 입신경계이던 허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다. 이로 인해 마지막 11번째로 만들어지던 이매탈은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후마을에서는 허도령의 령을 위로하며 서낭당 근처 도령당을 지어 매년 제를올리게 되었고 마을에서는 탈춤이 시작되었다.

하회동의 서당신은 '무진생 서당신' 또는 '김씨 할매' 로 일반 평소에 서당제의 제의는 보통 통제라 부르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고 안녕과 풍요, 풍어 등 빌기 위해 3년,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음력 12월말부터 행해지던 특별 대제이다.

옛적에는 정월초 2일 아침에 무녀 수십 명을 고용하여 양반, 선비, 부네, 이매등 가면을 쓴 공대들과 산주와 농악대와 함께 모여 산위에 있는 서낭당으로 올라가 제의를 차려놓았고 서낭신을 내림대에 받아 모신다. 별신굿의 과정은 강신, 영신, 신유, 송신을 하였고 별신굿을 묻어들어 온 잡신, 잡귀를 쫒아내고 정월 보름까지 행하여 신을 즐겁게 해드림으로써 재앙을 물리치고 농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비 문제로 차츰 그 수요를 차츰 줄이고 정월 보름 며칠 전 무녀 3, 4명만 고용하다가 1928년에 마지막으로 연희했다.



〈그림 2-5〉16) 하회탈춤 신방마당

탈은 연희자의 얼굴에 탈을 뒤집어씀으로써 타자화를 쉽게 생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력을 갖추게 해주는 신앙가면이다. 그리고 하회탈은 파격적이고 왜곡된 얼굴이며 표정 매우 극단적으로 과장되게 만들어진 얼굴이다. 낮섦과기괴함을 통하여 잡귀, 잡신의 의지를 담고 상통하였다. 이러한 가면에서부터더 나아가 예능가면으로써의 연희가면이 되는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가면들이었다. 그리고 연희자가 이런 과장된 가면을 쓰고 춤을 추어 신의 능력을 갖추고 재앙을 물리치는 것만 아니다. 가면을 쓴 사람끼리 싸움형태로 나오는 굿은 누가 이기냐에 따라 농사의 풍흉이 결정되는 것도 있고, 유사한 성행위를통하여 겨울을 물리치고 여름을 불러들이면서 풍농 풍어의 설도 있다. 조동일에 의하면 "두 서낭의 싸움은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면서 또한 겨울과 여름의 싸움이다. 여성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이 여름이 겨울을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것과 복합되어 있다. 겨울과 여름의 싸움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며, 연극의 기원으로 이해된다.



〈그림 2-6〉17) 하회동 전경

하회 가면의 제작 년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시대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미루어 보아 각시탈에서 그 년대를 짐작할 수 있다. 각시탈의 머리 위에한 일자로 무겁게 틀어 불리고 여섯 타래의 큰 머리를 얹었고 다시 두 귀를 덮으며 좌우 양쪽 옆으로 수선을 그리듯 머리를 틀어 내린 둔 채 연결되어

¹⁶⁾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38&docId=532037&mobile&categoryId=1638 검색일: 2013. 05. 22.

¹⁷⁾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ie=utf8&query =%ED%95%98%ED%9A%8C%EB%8F%99 검사일:2013, 05, 22,

있다. 이러한 머리스타일은 보물 제330호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금동보살 입상의 머리스타일과 비교하여 매우 흡사하다. 바로 이 헤어스타일을 통해 년 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이 머리스타일과 조선시대 의 트레머리와 분명히 다르고, 부여 군수리 금동보살 입상은 6세기 후반의 불교미학을 확인시켜 주는 유물이다.

탈춤이 민중의 연극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며 하회탈춤은 주로 농촌 기반으로 성장한 탈춤계열이다. 국가에서 탈춤을 만든 것은 아니고 민간 하층의 연희자들이 농경의식 즉,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거행하던 탈춤이며 민중의 예술이었다.



〈그림 2-7〉18) 각시가면



〈그림 2-8〉19)부여금동보살입상

2. 봉산탈춤의 역사

봉산의 유래는 우리나라 서해일대(황해도)에 분포된 대표적인 탈춤중의 하나로서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사리원 붕산을 중심으로 서쪽 평이지대인 안악, 신천, 재령, 징연, 송화, 은율 등지와 서남쪽 평이지대인 기린, 신원, 서흥, 평

¹⁸⁾ 이나영. 「한국의 전통의 탈에 관한 연구」. 중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46.

¹⁹⁾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ie=utf8&query=%EB%B6%80%EC%97%AC%EA%B8%88%EB%8F%99%EB%B3%B4%EC%82%B4%EC%9E%85%EC%83%81+&x=40&y=20

산, 신막 등지와 해안지대로는 해주와 강령 그리고 응진, 추화, 송림, 금산, 연백 등지에 널리 연희되었다. 이러한 분포로 보아 해서탈춤은 거의 황해도 전역에서 놀던 탈춤으로 그 중에서 봉산 탈춤이 최고봉으로 대표 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래의 일이며 특히 일제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한다.²⁰⁾

약 200 여 년 전 봉산탈춤의 중증자 안초묵은 봉산 이속이며 일러오고 그가 전라남도의 어느 섬으로 유배를 당하였다가 귀향하였다. 돌아온 후 나무탈을 중이탈로 바꾸는 등, 이 놀이를 현저하게 개혁하였다. 그 후에도 속들이주로 놀이로 담당하게 되었고 세습하였다. 이러한 구술로 미루어 보더라도 봉산탈춤이 200 여 년 전부터 있어온 것이며, 또 다른 지방의 탈춤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오면서 개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오늘까지 전승되어 온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위지의 소위 전라남도의 주요한 읍면 장터인 황주, 봉산, 위성, 평산 등지에서 성행했다는 것은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가 자주베풀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황해도 지방의 주요한 읍들이 농산물과 수공업의 모여드는 중심 교역지이며 또 소도시로서 탈춤 공연을 뒷바라지할 만한 경계적인 여건을 갖춘 결과 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황해도 탈춤은 지리적으로는 살려보면 북으로 대동강을 넘지 못한 반면에 남으로 경기도 지방의 산대놀이 지역과 남북직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중부지방의 산대놀이와 쉽게 연결될 수 있었고 산대도감계통의 한 분파로 해석되고 있다.

봉산탈춤은 궁중에서 행하던 겨울의 나례와 국가의 공중행사 그대에 거행되었던 산대 가면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오래된 전통적권력을 가졌던 유교도 임진, 병자, 양란 등 인해 정조이후 공의로서의 정파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당시 이러한 행사에서 종사하던 나희의 연희자들은 이제까지 더 이상 국가에서 특별한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생계를 유지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기들의 산대잡희와 나례에서 익혔던 기술을 토대로 그 중에서 대중에게 갈채를 받을 정도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을 공연하였다.

이 놀이 연희시간은 연중 행사로 조선조 말 이전에는 4월 초 8일에 종교적

²⁰⁾ 이두현. 앞의 책 p.277.

인 것에 바탕을 두고 행해졌고 5월 단오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넓은 광장에서 새벽까지 연희하게 되었다. 농민이나 장거리 상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나 원님의 생일이나 그 부임날과 같은 관아의 경사와 중국사신을 영접하는 놀이로 특히 황주, 봉산, 서흥 등지에서 특별히 연희되었다.

봉산탈춤은 월래 주로 봉산구읍 경수대에서 연희되었으나 1915년경 사리원으로 행정기관을 옮겨지고 경기선 철도가 개통되어 사리원으로 옮겨지게 되어 경산암 아래에서 놀게 되었다.



〈그림 2-9〉21) 봉산탈춤의 사당(社堂)춤 과장



〈그림 2-10〉22〉 봉산탈춤에서 할미의 죽음 후에 무당이 거행하는 굿

²¹⁾ 전경욱. 「한국 가면극의 계통을 보는 시각 재론」. 한국민속학회, 2009. p.50.

제 2 절 중국 가면극의 기원과 발전

1. 중국 나례와 나희의 역사

중국의 나형태의 특성과 표현방법에 따라 궁나, 민간나, 사원나, 군나, 관부나로 구분한다. 궁정나는 궁정에서 거행하던 나례로서 보통 '대나' 라고도 불리고 민간나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나례로서 백성나, 향인나, 서인나등 여러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궁정나와 미난나의 다 귀신과 역병을 몰아내고, 복을 구하며 재앙을 펼쳐버리는 목적이다. 그런데 궁정나는 웅장하고 정해진 형식이 있고, 민간나는 궁정나보다 수수하고 지방에 따라 변화 할 수도 있다. 사원나는 사원에서 거행한 토대로 시작된 나희이다. 군나는 옛날 군대 및 그후손위주로 거행되던 나희이다. 이것은 유동적 군나 문화와 둔수지역의 민속활동과 같이 결합된 산물이다.

그리고 궁정에서 나례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춘추시대이전부터 행하여 졌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토템관념과 재앙을 펼쳐버리는 관념이 있었다. 그 관념은 더욱 발전을 할수록 무격의식 더 많이 생겨졌다. 그 중에 가면도 포함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원시의 무격관념과 원시의 예술을 연결할 수 있다. 그 중의 대표한 예술 하나는 바위그림이다. 음산(阴山)의 바위그림 중에 귀면, 신면, 무속가면 등의 그림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춘추시대이전 나의식을 확인 할 수 있다. 나의식의 갑골문은 '구 (寇)'인데 이것은 노예는 돼지와 양 같은 짐승과함께 희생을 시켜 귀신을 쫓은 제사 의식을 의미한다. 나의식에 사용되는 가면은 '기 (棋)'로 표기하는데 역변을 쫓아내는 가면을 상징한다. 후대에 나면 (傩面)은 棋头라고 한다. 선진(先秦)시대 문헌인『주례 (周禮)』 권31 하관사마(夏官司馬)제4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나례의식이 기록되어있다.

방상씨는 곰 가죽을 덮어쓰고, 황금의 네 눈을 갖고 검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을 들고 방폐를 가지고, 백예(百隸)를 거느리고서 철에 따라 나를 행함으로써 집 안을 뒤져 역귀를 몰아냈다.²³⁾

²²⁾ 전경욱. 앞의 책. p.50.

또 『주례(周禮)』 권28 하관사마(夏官司馬)에서는 "방상씨(方相氏) 광부사인(狂夫四人)"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나라 때 나의식의 대표적인 신은 방상씨이다. 은주(殷周)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 '씨'로 부르고 '방상씨'도 주나라관직중 하나인데 정관에서 포함한 하관(夏官)이다. 그런데 계급이 없고 '광부' '사인'만 이다. 그는 곰 가죽을 입고 머리에 황금사목(黄金四目)의 가면을 썼다. 그래서 상여행렬에서는 귀신을 쫓고 길을 열었으며 무덤을 팔 때 창으로무덤 안의 네 모퉁이를 쳐서 망령을 구제했다.

『예기(禮記)』권15월령(月令)에 의하면 (『呂氏春秋』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음)

계춘: 나라에 나를 행할 것을 모든 문에 제물을 내걸어 봄기운을 끝이게 하였다.

맹추: 천자는 이에 나를 행하여, 가을을 통달케 하였다.

계동: 관계관에게 명하여 대나를 행하고, 문 옆에 제물을 내걸고 토우를 내놓음으로써

한기를 보내었다.24)

또 『논어(論語)』향당(響黨)편에서는 민간 나례의 모습을 전해 준다.

고을 사람들이 나를 행하면, 예복을 입고서 동쭉 섬돌에 서 계셨다.25)

이상과 같이 전진시대의 나례를 행하는 방법이 역귀를 쫓아내고 불상을 막기 위해 매년 사계절이 바꿔하는 늦봄(계춘)'국인나', 중추'천자나', 늦겨울 (계동) '대나'이었다. 계춘과 중추의 나의식을 거행할 때 천자나 대신, 귀족만 참가 가능하지만 계동의 나례는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후한서〉(예의지)5에서 고나(古儺)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4월 초하룻날 대나를 거행하는데 이 해사는 악귀를 쫓는다고 한다. 그 의식은 이러하다. 10 세 이상 12세 이하의 중황문 자제 120명을 선택하여 진자를 삼는다. 진자는 전부 붉은 두건을

孟秋:天子乃難 以達秋氣.

季冬:命有司 大難 旁讓 出土牛 以送寒氣.

²³⁾ 方相掌蒙熊皮 黃金四目 玄衣朱裳 執戈揚盾 帥百隸而時儺 以索室歐疫.

²⁴⁾ 春秋:命國難 九門磔攘 以畢春氣.

²⁵⁾ 鄉人儺, 朝服而立於阼階.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부수를 손에 든다. 방상씨가 황금으로 네 눈을 장식하고 곰가죽을 쓰고 검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창을 들고 방폐를 손에 든다. 12짐승은 뿔이 달려 있다. 중 황문이 걷기 시작하면 冗이 뒤따르고 仆射가 부추겨 악귀를 禁中에서 축출한다. 황혼이 깃들 무렵 온 조정의 문무대신들이 궁전 앞에서 대기한다. 황문령 '진자 준비! 역귀를 몰아낼 것!' 하고 주하면 중황문의 선도하에 진자들이 뒤따라 주문을 외운다. 12신으로 하여금 흉악한 악 귀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너희들의 몸뚱이들이 허리뼈를 꺾으며 살을 찢고 내장을 뽑게 할 것이다." 방상씨가 횃불을 손에 들고 역귀를 端口 밖으로 몰아낸다. 단문 밖에도 호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횃불을 이어받아 궁을 나간다. 그리고 궐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문 밖의 오영기사들이 그 횃불을 전해 받아 維水에 가져다 던진다.²⁶⁾

앞에 기록에 의하면 궁중에서 방상씨와 짝하는 열두 짐승이 나타났다. 열두 짐승마다 각자 관리한 귀역이 하나이고 각자의 이름까지 붙였다. 그렇다면 구역을 몰아내주는 신령과 이들을 쫓아내는 악귀들이 다 증가했다. 이런 의례가한나라이후에 나의식의 규모는 점차 커지며 일정한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성행하였다.

위진남북조(기원3세기~기원6세기)중국 역사에서 360여 년간 증원지역은 시종 전란과 봉건할거에 빠져있었고 지배계급의 권력 교체도 매우 빈번한 분결한 시기며 각 이족문화에 서로 영양을 받고 용합되었다. 특히 서역문화가 성행한 시대라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다. 불사활동과 나(傩)의 종교 범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복을 구하며 재앙을 떨쳐버리는 것이 나의식과 일치한다. 양나라 종름의 『형초세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나에 대한 관한 기록이 있다.

"12월 18일은 납일(臘日)인데, 속담에 말하기를 납고(臘鼓)가 울리면 봄풀이 솟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장구를 치며 호두(胡頭)를 쓰고, 또 금강역사(金剛力士) 모습을 해 가지고 역귀들을 쫓아내었다."27)

^{26) 『}後漢書』卷15 禮儀志 第5.先臘一日,大儺,謂之逐疫.其儀,選中黃門子弟,年十歲以上,十二歲以下,百二十人為倀子,皆赤幘皂制,執大發.方相氏,黃金四目,蒙熊皮,玄衣朱裳,執戈揚盾.十二獸,有衣毛角,中黃門行之,冗從僕射將之,以逐惡鬼于禁中.夜漏上水,朝臣待會侍中,尚書,御史,謁者,虎賁,羽林,朗將,執事,皆赤幘陛衛.乘與御前殿.黃門令奏曰;倀子備,請逐疫.於是中黃門倡,倀子和,曰;甲作食(歹凶),胇胃食虎,雄伯食魅,騰簡食不祥,攪諸食咎,伯奇食夢,強梁祖名共食磔死寄生,委隨食觀,錯段食巨,窮奇騰根共食蠱,凡使十二神,追惡凶,赫女驅,泣女幹節,解女肉,抽女肺腸,女不急去,後者為糧.因作方相與十二神獸,歡舞,周偏前後省三過,持炬火送疫出端門.門外驅騎,傳炬出宮,司馬闕門,門外五營騎士,傳火棄維水中.

^{27) &}quot;十二月八日,為臘日,諺言,臘鼓鳴,春草生.村人并擊細腰鼓,戴胡頭,以作金剛力士

전에 납일에 거행했다고는 하지만 나제가 아니고 납제하루 전에 대나를 행하였다. 그런데 그때 구나의식과 납일 이미 교체하였다. 납일에 호두를 쓰고 금강역사의 모습도 해가지고 역귀들을 몰아내는 것이 불교활동에서도 볼 수 있고 '납팔절'라고 한다. 사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득도성불의 날짜는 납팔일이였다. 그리고 궁정나례는 거의 한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태상사가 설립해서 점차 오락으로 바뀌어 희극의 변화도 촉진시켰다.

수당(기원6세기~기원9세기)천하를 통일하였고 중국 봉건왕조 체질이 더 완비되고 왕조의 예술문화가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전통적인 의례가 상주, 진한에 따라 더욱 발전하고 위진남북조 수 백 년의 각 민족 문화도 수당 궁정에 스며들어갔다. 『수서』예의지(禮儀志)에서"문사(問事)12인", "공인(工人)22인", "방상씨(方相氏)1인", "창사(唱師)1인", "고각(鼓角)각 10인"이라 하였으니, 이에 따라면 수나라 나례 거행할 때 진자 수량은 북제(北齊)와 똑같은데 '문사12인' '공인22인' 특히 강조하였고 악무는 태상사(太常寺)에게 맡겼다. 그리고 공인 22명중 한명은 방상씨에게 맡기고 한명은 창사에게도 맡겼다. 그리고 고각한 사람에게도 각 10명을 맡겼다. 여기에서 방상씨와 창사가주요 인물로 되었고 12신인은 12문사로 대신하였다. 〈수당 柳或传〉에 의하면 민간 정월에서 보름날에 망월의 민속 활동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민간 정기의 세기 나납제가 매우 유행했다.

문인 단안절〈악부잡록〉(구나)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잔 열흘에 태상경과 여러 관원들이 본사에서 먼저 나를 사열했는데, 아울러 여러 가지 음악도 모두 사열했다. 그 날 크게 잔치를 벌이는데, 너덧 관청의 관원과 조정 대신들의 집에서도 모두 악봉위로 올라가 그것을 구경했다. 백성들도 역시 들어와 구경했는데 대단한 장관이었다. 태경은 이 연말의 하루 전날 우금오의 용미도 아래에서 사열을 했는데, 음악은 쓰지 않았다.²⁸⁾

위 인용문에 의하면 궁중에서 거행된 대나는 거행되기 10일전에 태상시이

以逐疫."

²⁸⁾ 事前十日,太常卿并諸官于本寺前先閱儺,并遍閱諸樂.其日,大宴三五署官,其朝寮家節上棚觀之,百姓亦人看,頗謂壯觀也.太長卿上此.歲除前一日,于右金吾龍尾道下重閱,即不用樂也.

미 예습하고 나의와 제악을 검열하였다. 검열할 때 오락성을 갖추고 관원과 조정 대신들의 집에서도 '악봉 위로 올라가 그것을 구경했다'의 기록이 있었 다. 여기에서 거행하던 제악은 산악도 포함되어 가무잡희까지 합한 총칭이다. 이는 당대의 나례에서 역귀를 몰아내는 본래의 주제와 동떨어지고 나례의 오 락성 혹은 의식의 가무성이 더욱 강화하였다.

『구당서(舊唐書)』「예의지(禮儀志)」의 기록에 의하면, 개원시기에는 주 (州), 현(縣)급에서도 나례를 거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상급 주는 예순 명, 중하급 주는 마흔 명, 현급은 전부 스무 명씩 정하고 방상 네 사람이 창과 방패를 들고 그들을 영솔한다. 나례를 거행하기 전날 밤에 소사가 영솔해 주문 (州門) 밖에서 밤을 지낸다. 나례를 거행할 때 현령이나 판색관(辦色官) 혹은 외인(外人)이 나자(儺者)를 안내해 관아에 들어간다. 북을 치고 법석대며 실내, 대문, 골목 곳곳을 샅샅이 살핀 다음 대문으로 나가서, 네 성문 쪽으로 걸어가 성곽을 나서면 행사가 끝난다. 앞에 의하면 당대이후의 나례는 민간에 복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상씨를 중심으로 하는 나희는 중당부 렵부터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 하였고 문신으로 유명해진 종규(鍾馗)가 방상씨에 대신하여 새로운 구나의식의 주역대신으로 등장했다. 당나라의 나례는 선진이래의 나의와 나제고례를 계승하고 개혁과 창조를 진행하였다.

맹원로(孟元老)의 『구당서(東京夢華錄)』권10 제석(除夕)조를 보면, 제야에 행한 북송 궁중의 대나에는 여러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장군(將軍)·문신(門神)·판관(判官)·종규(鍾馗)·소매(小妹)·토지(土地)·조신(竈神) 등으로 분장한 100여명이었다. 그 대신 고대 나례의 전통적 배역 방상씨, 십이지신, 진자 등고례의 전통적 배역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것이 나희의 최초 형태가 형성된 것이다.

송나라 오자목(吳自牧)의 『몽량록(夢梁錄)』 권6 제야(除夜)에 다음과 같이 지신밝기의 모습이 발견된다.

12월이 다 갈 때면 세상에선 말하기를, 달이 끝나고 해가 다하는 날이라 하는데, 이를 제 야 (除夜)라 한다. 선비와 서민들 집에서는 집의 대소(大小士庶家)를 막론하고 모두 문 앞을 청소하여 먼지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마당과 문을 깨끗이 하고는 문신(門神)을 갈아 붙이고 종규(鍾馗)를 내걸고, 도부(桃符)를 매어 달고 춘패(春牌)를 써 붙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

낸다. …… 궁중에서는 제야에 크게 역귀를 쫓는 儺의식을 해하는데, 모두皇城司의 여러 관원들을 동원하며, 탈을 스고 그림을 수놓은 잡색의 옷을 입고 손에는 금창과 은갈래창 및 무늬가 그려진 나무칼, 오색의 용과 봉황, 오색의 깃발을 들게 하였다. 그리고 교방(教樂所)의 악공들로 하여금 장군(將軍)·문신(門神)·부사(符使)·판관(判官)·종규(鍾馗)·육정(六丁)·육갑(六甲)·신병(神兵)·오방귀사(五方鬼使)·조군(竈君)·토지(土地)·문호(門戶)·신위(神尉) 등으로 분장하게하였다. 궁중으로부터 북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역귀를 몰아 동하문(東華門) 밖으로 나가서 龍池灣을 돌아가 그것을 (埋崇)라부르며 해산하였다.29)

여기서 주목한 것은 고대에서 옛날 나례에 등장하던 방상씨·진자·십이진신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에 장군(將軍)·문신(門神)·부사(符使)·판관(判官)·종규(鍾馗)·육정(六丁)·육갑(六甲)·신병(神兵)·오방귀사(五方鬼使)·조군(竈君)·토지(土地)·문호(門戶)·신위(神尉) 신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거의 특수한 성격에 독특한 외모의 소유자들이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다채롭기 때문에 나례의행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가면무희가 되었을 것이다.30)

다시 『몽량록(夢梁錄)』 권6 십이월(十二月)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달로 접어들면서 거리에는 가난한 저지들 너덧 명이 한 무리가 되어, 신귀(神鬼)·판관(判官)·종규·소매 등의 형상으로 분장해서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돈을 구걸하는데, 이를 타야호(打夜胡)라 불렀다. 역시 구나(驅儺)의 뜻을 지닌 것이다.31)

타야호의 형식은 궁나보다 훨씬 자유스럽고 간단한 형식이다 . 그리고 기예 와 오락성 가지고 있으며 구나를 하여 밥을 먹고사는 상업적 성질도 있다.

원나라 때 중원의 주인으로 들어와 소수민족 정권인 원왕조를 건립하였을 때에는 북방 고유의 나문화는 궁중으로부터 민간에 흘러들어가 사라져버렸다. 명대의 유명한 희극이 서복조(徐復祚: 1560-1629)가 쓴 희곡 이론서 『화

²⁹⁾ 十二月盡,俗云月窮歲盡之日,謂之除夜,士庶家不論大小家,倶洒掃門?,去塵穢,淨庭戶,換門神,掛鍾馗,釘桃符,貼春牌,祭祀祖宗·····禁中,除夜呈大驅儺儀,并系皇城司諸班直,戴面具、著銹畫著色衣裳,手執銀槍戟,畫木刀劍,五色龍鳳,無色旗幟,以教坊伶工,裝將軍、符使、判官、鍾馗、六丁、六甲、神兵、五方鬼使、竈君、土地、門戶神尉等神,自禁中動鼓吹.驅崇出東華門外,轉龍池灣,謂之埋崇而散.

³⁰⁾田耕旭.『탈놀이의 형성에 끼친 나례의 영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p.205 31)"自此入月,街市有貧丐者三五人為一隊,裝神鬼判官鍾馗小妹等形,敲鑼擊鼓,沿門乞錢,俗呼為打夜胡,亦驅儺之意也."

당각총담(花當閣叢談)』중 '나(儺)'란 제목의 글 속에 당시의 나희에 대해 생동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장 가소로운 것은 '고나(古觻)'에 두 노인이 나오는데 이를 나옹과 나모라고 불렀다. 지금은 다시 조공(灶公)과 조파(灶婆)가 되었으며,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데 백방으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으니, 조앙신이 이를 본다면 배를 끌어안고 웃을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러나 취할 만한 것도 있다. 여러 귀신이 흉악한 모습으로 날뛰면서 각기 한 모퉁이를 차지하면서 포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 뒤에 세상에서 천사라고 불리는 장진인(張真人)이 나와서 단에 올라가 법술을 부리며, 보법으로 귀신을 누르려 하고 경을 외고 부적을 그리고 수결을 취하면서 이들에게 겁을 주려하지만 여러 귀신들은 더욱 더 방자하게 날뛴다. 진인은 계책이다하고 나자 자신의 술법으로 말미암아 가물가물 술 취하여 꿈을 꾸는 듯이 되어 죽으려는 듯이 보였다. 조금 뒤에 종규가 나오자 여러 귀신들은 그를 보자마자 머리를 감싸 쥐고 사방으로 도망치며 죽음을 면하려고 하였다. 종규가 이 귀신들을 하나하나 잡아들이자 진인이 비로소 깨어났다. 이것으로 진인이 술수가 없으니 중요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32)

이상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나희는 남송시기에 형성되었고, 월말 명조에 성장해, 명대 중기 이후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³³⁾

청대에 들어오면 나례는 더욱 고의(古儀)와는 멀어졌다. 고칠경의 『청가록 (清嘉錄)』권12 12울조에 의하면, 도조왕(跳竈王), 도종규(跳鍾馗)같은 것들이 민간엣 나례 대신 행해졌다.³⁴⁾

민간나례에서 청배하는 제신 (諸神)으로 말하면 나단(儺壇)에 진열된 장계의〈삼청도(三清圖)〉(도교의 상청, 옥청, 태청)를 보아도 청배한 제로(諸路)신선이 삼백여 명에 달한다. 이로부터 민간의 무술활동과 도교는 아주 밀접하게결합되었고, 신전청배가 민간나의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35)

³²⁾ 最可笑者,古儺有二老人,謂之儺公儺母,今則更而爲灶公灶婆,演其迎妻結婚之狀,百端每狎,東廚君見之,當不值一捧腹,然亦有可取者,作群鬼狰獰跳梁,各據一隅,以逞其凶悍.後張真人即世所稱天師出,登壇作法,步罡書符捏訣,翼以攝之,而群鬼愈肆,真人計窮,旋爲所憑z附,昏昏若酒夢欲恐.須臾,鍾馗出,群鬼一見辟易,抱頭四竄,乞死不暇,馗一一收之,而真人始甦,是則可見今真人之無術,不足重也...

³³⁾ 전경욱.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일화당, 1998, P.173.

³⁴⁾ 전경욱. 앞의 책. P.173.

³⁵⁾ 전경욱. 앞의 책. P.173.

2. 중국 경극의 역사

경극은 중국의 전통연극 중 가장 대표적인 민중극으로 일찍이 한대(漢)(기 원전 220~206년)이미 궁중에서 광대들이 있었고 가면극이나 잡희(雜戲)가 성 행했다고 한다. 사마천(司馬遷)의『사기(史記)』에 의하면 角抵戲는 安息사람 이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줄거리와 연극을 공연하는 법 이 있어 후한에 들어와서는 창을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다.36) 후에 당나라 (618~907년)에 와서는 음악을 즐기던 현종(玄宗)황제가 양귀비를 즐겁게 하 기 위해서 궁중에서 연희를 시작하여 궁중에 이원(梨園)이라는 연희 전문인 양성소를 세워 더욱 크게 발전시키고 한편 민중들 사이에서도 여러 종류의 가무희와 그림자극이 발달하였다. 그 것은 몇 사람의 배우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무대였는데 이러한 연극은 노래. 춤. 잡기. 씨름. 가투 등과 함께 궁중은 물론 상류계급으로부터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매우 성행하 였다. 가무희와 잡희가 민간에 성행하면서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 전하였으며 안사(安史)37) 의 난 이후 중당때에 와서 성격의 크게 변화를 일 으키다. 이후 만당(晚唐)과 오대(五代)·송으로 이어지면서 가무희에서 거의 가 면을 쓰지 않는 메이크업의 가무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송대(960~1279) 에 이르러 당대의 참구희(參軍戲)38)를 계승·발전시켜 간단한 스토리를 연출하 는 일명 남희(南戲)라고도 불리는 가면극이다. 그것은 궁중에서 잔치를 할 때 나 놀이를 할 때 오락으로 연출하던 민간 연희이었다. 다음 원대(1271~1368) 에는 몽고인들이 희문(戲文)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맞게 고쳐서 원잡극(元雜 劇)이라는 가무희를 발전시켰다. 그 원잡극은 배우가 창(唱), 과(科), 백(白) 을 스스로 하고. 등장인물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공연예술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경극의 기초도 되는 것이다.

³⁶⁾ 안현순, 김미선. 「경극(京劇) 안면분장(顔面扮裝)의 유형분석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대학 학술저널, 1999. p.319.

³⁷⁾ 安祿山·史思明의 난: 지방호족세력이었던 안록산과 사사명은 자신의 군사력을 키워 향락에 빠져 쇠약해진 중앙전권에 반란을 일으킨다.

³⁸⁾ 참군희: 원래 명칭은 拜參軍으로 당, 송대에 유행한 공연형식의 일종이다. 당나라 때의 유명한 배우였던 李仙鶴이 韶州同正參軍이라는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주로 참군이 蒼과 鶻이라는 두 배역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대화나 동작을 통아여 웃음을 자아내며, 사회현실이나 부패한 관리, 조정의 실정 등을 풍자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명대(1368~1644)에는 『명전기(明傳記)』라고 불리는 장편 가면극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송대에 민간에서 문(文)이 귀족층에 의해 고급화 된 것이다. 앞서 발달한 원잡극(元雜劇)이 북방언어와 북방음악을 바탕으로 발달 된 북곡(北曲)에 비해 명 전기는 남방언어와 남방음악을 바탕으로 발달 된 남곡(南曲)으로 양립된다. 원대에 북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잡극 이후에 원말명초(元末明初)에 걸치고 관객과 작가들 북곡에게 관심이 줄어지는 반면에 남방의 항주(杭州) 및 절강(浙江) 부근의 남곡에게 관심이 많아지는 전화되었다. 경극은 북경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경극(京劇)으로 불리어 졌지만, 그 실제로는 남곡(南曲)계통으로 남방(南方)에서 북경(北京)으로 유입되어 경극이 것이다.39)

명말청초(明末清初)에는 계층간·민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명 중엽 이래 싹 텄던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부단히 성장함에 따라 시민계층은 서서히 봉건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의식과 민족의지가 강렬하였다. 이 정치적 움직임은 자연히 문화·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주었고,이 시기에 주도적인 위치를 치지하고 있던 곤곡(昆曲)이 귀족화되면서 점차 쇠락하고 민간의 공연예술은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극의 전신'이황조(二黃調)'는 북방의 지방적인 야생성이 짙은 목가적인 곡조로 북경에 유입되었을 때 귀족적인 곤곡이라는 것과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귀족이나 문인사대부들은 곤곡의 우아한 분위기와 정교한 음률에 지나치게 애착하여 곤곡 이외의 다른 것은 배척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곤곡은 고답적인 희극으로 귀족이나 문인사대부들이 독점한 공연예술로 서민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오락,연희에 대한 충족시켜 줄 수 없었고 큰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황조(二黃調)'의 유입은 북경지역의 전적으로 반갑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8세기말,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곤곡과 같은 귀족이나 지식인 계급의 향유하던 공연예술은 더욱 진부해지고 고갈되었는데, 이는 과거 제도의 틀 속에 이루어지던 문예가 창작성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극의 창각과 계승

³⁹⁾ 안현순, 김미선. 앞의 학술저널, p.319.

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지식계급도 아니었고 일반 서민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창작배경은 경극이 북경 사회의 서민계급을 비롯해서 모든 계층의 완전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경극은 청왕조가 완전히 쇠퇴하여 거의 몰락해가던 그 때에이러한 중국 대표하는 공연예술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1779년 이래로 위장생(魏長牛)40) 이 북경을 확실한 중국 희극의 중심지로 만들 때까지는 아마도 양주(揚州)가 당시 전국에서 희극이 가장 번 성한 곳이었을 것이다. 양주는 양자강(揚子江)41) 과 대운하(大運河)42) 를 끼 고 있어 소금무역이 번성한 경제의 요지로써, 대상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 여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 생활 속에 자연히 문화가 발전하였고 가무희가 성행하게 되었다. 즉, 양주는 무역의 번창으로 경제적 중심지였고 매우 다양한 음악 형식과 희극 형식이 융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여러 지역의 예술과 기예는 양주로 모이게 되었다. 당시 경제력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상인들은 연극이나 기예의 공연에 있어 그 화 려함을 선호하여 공연예술의 의상과 소도구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이렇게 희극이 발전했던 양주에서는 건륭제가 순회43) 를 할 때 황제를 접대 하는 성대하고 화려한 연희를 베풀었는데 연극은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건륭제는 때때로 잠행해서 시의 극장에까지 연극을 보러가 고 수도 북경의 교외에 큰 무대를 지어 공연을 하게 하는가 하면, 양주에 관 청을 만들어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고금의 희곡을 모아 정리하게 하기도 할 만큼 예술을 폭넓게 수용한 황제로 특히 연극을 무척 좋아하였다44).

건륭55년(1790), 안희성(安徽省)의 단(旦)역할을 맡은 고낭경(高朗亭)등의 극단인 삼경반(三慶班)을 조직하고 건륭황제의 80세 생일잔치 맞이하여 북경에서 계속하게 된다. 그 중에 강소(江蘇), 안휘(安徽)지방의 삼경(三慶), 춘대(春臺), 사희(四喜), 합춘(和春)이라는 4대희반(四大徽班)이 제일 유명 하다. 사실 합춘반은 삼경반보다 13년 더 늦게 북경에 들어오지만 역사에서 이들을

⁴⁰⁾ 魏長生(1744-1802), 字는婉卿. 秦腔 배우로 花旦을 연기하였다.

⁴¹⁾ 중국 강소(江蘇)성의 장두(江都)에서 전장(鎮江)현 구간의 창장(長江)이다.

⁴²⁾ 북경으로부터 항주(杭州)에 이르는 운하이다.

⁴³⁾ 乾隆帝는 在位 60년(1736-1775)동안에 여섯 차례의 순회를 하였다고 한다.

⁴⁴⁾ 이강열. 『중국의 놀이문화』. 월인 출판사, 1988. p.60.

모두 '4대 희반 입경'이라 부른다. 이들은 당시 연극계의 주도권을 난해하고 장황한 저음인 곤곡에 비하여, 명랑하고 수운한 동작이 많은 남곡계(南曲戲)의 계통을 이어 받은 이항조(二黃調)를 곧 관중들로부터 절찬을 받는다. 이들은 '경극'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고 북경 극단이 부른 곡조를 경조(京調)라고도 불렸다.

즉, 경극(京劇)은 안희성의 휘조(徽調: 안휘에서 유행되던 곡조)에서 비롯되어, 청조 건륭제 시기에 이황조(二黃調)를 위주로 한 안휘성의 극 공연팀이 북경으로 보내졌는데, 그 이후 북경 서민들에게 정착되면서 곤강(昆腔: 하북북경일대에 유행했던 곡조)과 진강(秦腔: 섬서성 일대에 유행했던 곡조)의 극내용, 음악곡조, 표현방법 등의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극은 서민층의 기대와 기호에 맞추어 매우 동적(動的)이며 곡예적(曲藝的)인 요소가 가미되며 대중예술로 발전하였던 것이다.45)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중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서 혁명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 도광(道光)연간(1821-1850년)에 들어와서 도광 20년(1840년)에 아편전쟁을 겪고, 도광30년(1850년)에는 태평천국(天平天國)의 난을 당했다. 그리고 1898년 무술개혁운동, 1911년 신해혁명 등 시국이 안전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중국 전국의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918년 5·4운동을 통해 중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특히 북경은 다른 전쟁을 겪고 있던 지방보다 왕조차원의 지원이 비교적 안정되고경극은 청대말기인 19세기 중·후반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경극은 민국년간(1912-1949)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나서 우국의식의 유입해서 중화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으로부터 경극도 서양 연극의 개념과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 희극계의 일부에 변화가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부와 당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새로 설립된 중국희곡연구원(中國戲曲研究院)·중국경극단(中國京劇圖)등 을 중심으로 백화제방(百花齊放), 추진출신(推陳出新)의 기치에 따라 내용이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들어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된다. 현대 북경에는 북경경극원(北京京劇院)이라는 명칭 아래 가장 유명한 배우가 '4대 명단'과 '4대 수생'으로 나누

⁴⁵⁾ 김세영, 외 4인 공지. 『연극의 이해』. 서울: 새문사, 2002. p.421.

고 있는데 유명한 '4대 명단' 이란 매란방(梅蘭芳, 1894-1961)·순혜생(荀慧 生, 1900- 19 61)·상소운(尚小雲, 1900-1958)·정연추(程碩秋, 1904-1958) 라는 네 사람의 배우이다. 유명한 '4대 수생'이란 마련량(馬連良, 1901-1966)·담부영(譚富英, 1906-1977)·양보삼(陽寶岑, 1909-1958)·해효백 (奚嘯伯, 1910-1977)이 있다.

지금까지 계승하는 연극 제목이 200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많이 연출하거 나 관객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제목은 적어도 300여 개가 있다. 특히 영화 〈패왕별희(霸王別姬)〉, 〈매란방(梅蘭芳)〉 등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함으 로써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림 2-11〉⁴⁶⁾ 영화 "매란방" 〈그림 2-12〉⁴⁷⁾ 영화 "패왕별희"

이상에서 고찰하였듯이. 경극은 기원전부터 여러 대에 걸쳐 창(唱, 노래)과 (科,연기)백(白, 대사)의 삼위일체를 요구하면서 춤이 곁들여지는 종합무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⁴⁶⁾ 이선연. 「중국 경극분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 검보(瞼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1.

⁴⁷⁾ 위의 논문. p.21.

제 3 장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분장 분석

제 1 절 한국 가면극의 분장

탈춤이란 탈을 쓰고 탈난 것을 탈잡아 노는 춤 놀이이다. 탈을 쓴다는 것은 놀이에서 가면을 복면처럼 얼굴에 쓴다는 말이 되겠고 탈난 것이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궂은일이나 변고, 액, 재앙 등을 일컫는 말이며 탈 잡아 논다는 것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을 밝혀낸다든가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어낸다는 뜻을 지닌다.(48)

1. 하회탈춤의 분장

하회탈은 12세기경 고려중엽에 허도령이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면의 사실적인 표정과 뛰어난 제작 기법은 서구까지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걸작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국보 121호로국립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회탈의 재질은 전부 오리나무로 제작되었고 그것을 정교하게 조각한 다음 부네탈과 각시탈의 바탕은 두 겹, 세 겹 흰색 옻칠을 하였고, 나마지 하회탈 다 주홍색을 칠 한 바탕이다. 그리고 탈의 구조에 보면 선비탈, 양반탈, 중탈, 백정탈의 턱을 다 끈으로 연결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하회탈을 작용하고 연희자들 연희할 때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탈을 나타난 모습을인간 사람의 희로애락을 진실하게 느낌을 수 있다. 또 가면극에서 선비탈, 양반탈, 각시탈, 중탈, 백정탈 등 탈을 '우리 얼굴' 표정을 나타낸 것처럼 한국사람의 골격과 용모의 전형을 보여주고 각 역의 개성도 잘 표현될 수 있다.

하회탈은 친근한 자연적인 고전미와 과욕이 없는 상태의 소박함이 함축적으로 내재되어있는 것으로 인공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균형, 비례, 조화를 중요시한 것이다.⁴⁹⁾

⁴⁸⁾ 강은주.「한국 하회탈과 일본 노오무용에 관한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

하회탈은 분장을 통하여 그 당시대의 벽사의식, 양반, 파계승 등 계승풍자, 모욕, 남녀의 갈등, 하층에서 살아 있는 종이나 가난한 서민의 용모 등 사회 현상을 비추어, 역할에 맞게 분장으로 표현하였다.

1) 양반탈

양반은 고려,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이며 "길을 가다가 소나무기를 만나도 경망스럽게 뛰어 다니지 않는다.", "대추 세알 먹어도 배부르다.", "냉수마시 고도 이빨 쑤신다."라는 말도 있었다. 즉 양반의 허풍을 풍자하기 위한 나오 는 말이다. 이와 같이 양반탈의 분장은 눈썹, 눈, 코, 입 등이 대단히 부드러 운 선으로 묘사하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표정을 부각 시켰다. 주름살도 적고 얕게 표현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양반을 풍자하고 야유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양반탈의 높이는 23cm이고, 너비는 17cm이다. 갸름한 타원형 얼굴에 주홍색을 칠하였고, 눈썹은 움푹 들어갔으며 기러기처럼 생겼다, 실눈하고 올라가는 눈꼬리, 양 뺨은 도두룩한데 가느다란 주름살도 있다. 이마 위에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다. 양 눈, 콧구멍과 입은 뚫렸으며 탈의 턱은 따로 만들어 끈으로 연결해 놓아 착용하며, 이렇게 분장하고 양반의 인자함과 호방한 미소를더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지배계급의 특권도관객들에게 더 생동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 이탈은 활짝 웃는 표현기법을 이용해서 그 여유와 낙관이 넘치는 것을 풍자하고 있다. [표 3-1]

2) 선비탈

조선시대의 선비는 관직에 나가지 못 하거나 관직에의 뜻을 버린 인물이며 학문에 몰두하고 대쪽 같은 지조와 고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선비탈의 높이는 19cm이고, 너비는 16cm이다. 분장한 특징은 역삼각형의 얼굴에 주홍 색을 칠하였고, 눈썹은 움푹 들어가고 검은색을 칠하였다. 눈썹은 오른쪽의

⁴⁹⁾ 이나영. 앞의 논문. p.29.

것은 아래쪽으로 당져지고 툭 튀어나온 눈은 열심히 글을 읽은 탓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마 위에 머리 부분 검은 색을 칠하였고, 눈꼬리가 위로 치켜졌으며, 코는 우뚝하고, 입을 조금 벌리고 불만과 노여움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마의 주름살이 많고 깊으며, 특히 돌출 되는 광대뼈는 세속에 타협하지 않는 인품을 나타낸 것이다. [표 3-1]





[표 3-1]50) 양반탈

선비탈

3) 초랭이탈

초랭이 놀이에서 양반의 종으로서 대체로 경망스럽고 양반을 곯리는 인물이다. 초랭이탈의 높이는 23cm이고, 너비는 14cm이다. 얼굴 바탕은 주홍색을칠하여 이마는 툭 튀어나오고 코는 대체로 짧으며 콧등 끝이 평평하며 콧등과 콧방울에 주름이 있다. 가볍게 벌린 입에는 이 네 개가 붙은 모양으로 분장을 시키고 앙심을 품은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입은 뚫렸고 아래틱은 뾰쪽하며 동그란 눈은 뚫리었으며, 정면을 향하고 볼의 근육과 주름은 좌측은 아래를 또 우측은 위를 향한다.

관상학으로 초랭이탈의 분장을 분석하면, 이마가 불거진 상은 윗사람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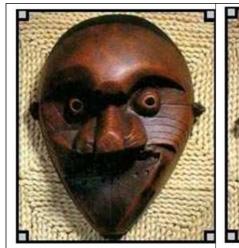
⁵⁰⁾ 이나영. 앞의 논문. pp.47~48.

견과 서로 않 맞고 고생이 많으며 고집이 세다. 이것과 초랭이는 상전인 양반을 대하여 행동이 불손한 성격과 일치한다.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인사를 할 때 엎드린 양반의 머리 위에 올라타 선비와 대신 인사를 하는 행동하는 역할이라서 분장도 자기의 상전인 양반 조롱하는 성격과 맞게 하기 위해서 코가 짧고 눈썹 뼈가 튀어나오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은 다 성질이 급한 사람 광상학에 생기는 모양이고 이는 영악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기어려운 초랭이의 성품상 합당한 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콧등에 주름이 있는 사람과 뺨에 살이 쑥 빠진 사람 다 재산이 쌓이지 않는 상으로 초랭이가 처하는 종이 신분의 생활상을 표현한 것이 합당한다. [표 3-2]

4) 이매탈

이매는 선비의 하인으로 등장하는 역할이다. 초랭이와 이매는 같은 하급 계층으로 초랭이는 종이라 하고 이매는 하인이라 한다. 이 탈은 바보탈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분장은 바보의 성격 맞게 바보분장을 하였다.

이매탈의 높이는 20cm이고, 너비는 14cm이다. 얼굴 바탕은 주홍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으로 칠하는 눈과 눈썹은 아래로 축 쳐져 있으며 움푹 들어갔는데, 이매의 바보스러운 성격이나 심성이나 순하고 착한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 콧구멍은 뚫렸으며, 코는 평평하고 비뚤어져 있다. 이 코의 분장은 몸의어느 한 부분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매의 다리 한쪽이 틀어져절름거리며 비틀거리는 불쌍한 바보병신역의 분장과 일치한다. 입은 웃고 잇는 표현기법을 써서 바보스럽기도 하고 순진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탈과는 외관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래틱이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한 것은 하회탈을 제작했다는 허도령이 세속적인 생활을 피하지 못하고 마지막 이매탈의 턱을 미처 만들지 못한 채 죽어 버려 지금까지 턱이 없는 채로 전해져온다는 전설이 있다. 이 탈의 전체적인 분장 특징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보스러움과 순진한 분장이다. [표 3-2]





[표 3-2]51) 초랭이탈

이매탈

5) 중탈

중은 놀이에서 파계승으로 등장한다. 중은 놀이에서 파계승 마당의 있으며 길을 가다가 여자가 오줌 누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성욕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여자가 떠난 자리의 흙을 모아들고 냄새를 맡고서 여자를 탐하고 나중에 각시를 채어가는 역할이다. 그래서 중탈의 분장은 대체로 호색 하고 파계한 승려 표현하는 분장이다.

중탈의 높이는 20cm이고, 너비는 16cm이다. 얼굴 바탕은 주홍색을 칠하였고, 눈은 초생 달처럼 가늘게 휘어졌고 있는데 능청스럽고 교활하게 표현한다. 눈꼬리 위로 주름이 두 개 씩을 부각 시키고 이것은 자손 연이 희박한 것을 상징하고 중의 신분과 어울리는 분장이다. 눈썹을 검은색을 칠하여 눈과의사이가 멀다. 양 뺨은 도두룩한데, 주름살도 여러 가닥이 나온다. 이 혹에 대하여 혹자는 부처의 이마에 있는 혹이 있으면 음성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말이 있다. 이 혹에 대하여 혹자는 부처의 이마에 있는 백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부처의 혹을 파계승의 비유하는 것은 어딘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리려 아무리 파계승일자라도 중의 신분으로 여자를 탐한다면 이는 그 스스로

⁵¹⁾ 이나영. 앞의 논문. pp.46~47.

도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놀이에서도 행여 누가 볼 까 하여 주변을 살피다가 남(초랭이)의 눈에 띄게 되자 여자를 업고 달아난다. 이러한 행동은 중의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이 떳떳치 않음을 스스로 느끼며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의 큰 혹은 놀이에서의 역할에합당하다 생각한다.52) 코는 우뚝하고 코가 콧방울이 크며 짧고 콧등에 주름이 있다. 코가 짧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기 어려움 상징하고 있으며 콧등에 주름이 있으면 재산이 쌓이지 않으며 콧등에 세로금이었으면 자식이 없는 것을 상징하므로 코 분장도 중의 신분에 맞게 한다. 윗입술은 아래로 길쭉하고 뾰족하게 나있고 노끈으로 연결시키는 탈이고 아랫입술은 돌출되었다. [표 3-3]

6) 백정탈

백정은 원래 희광이라 불러졌다하며, 고려 때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였다. 놀이에서는 살생을 하고 늘 죄의식 속에서 살다가 천둥벼락이 치는 날에 미 쳐 버리는 역할이라서 망나니의 포악한 특징을 맞게 분장하는 것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백장탈의 높이는 24cm이고, 너비는 16cm이다. 가면 바탕은 주홍색으로 칠하였고 이마가 다른 발보다 크게 비뚤어져 있으며 주름이 몇 가닥 있고 작은 동그란 혹이 달렸고 있는데 이것은 불량하고 잔인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장하는 것이다. 검은색을 칠한 눈썹은 움푹 들어갔는데 눈꼬리는 뒤로 치켜올라갔다. 양 뺨은 도두룩한데 주름이 많이 나 있다. 코는 각형 이며 콧날은 다른 탈에 비해 좁고 입은 아랫입술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험악한 표정은 그의 신분에 맞게 분장을 시킨다. 인간에서 떳떳치 못하고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치워 버린다고 상징한 얼굴형은 각형 얼굴형이라서 백정탈 전체적으로 부드럽다고는 할 수 없는 얼굴형으로 분장하였다. [표 3-3]

⁵²⁾ 강은주. 앞의 논문. p.22.





[표 3-3]53) 중탈

백정탈

7)할미탈

할미는 베틀에 앉아 베를 짜면서 일평생의 고달품을 넋두리하며 세상을 오래 산 노파로 등장한다. 할미의 분장은 대체로 강인하며 처량하게 보이는 뾰족한 노파 얼굴로 하였다.

할미탈의 높이는 20cm이고, 너비는 14cm이다. 눈썹은 움푹 들어갔는데, 동그란 눈알을 돌출되고 눈자위는 도두룩하다. 코는 살 없이 뾰족하게 솟아 있고 아래턱은 얼굴과 함께 붙어 있어서 또 뾰족하게 만들였다. 이 살이 없는 뾰족한 얼굴과 평생 베를 짜면서 고달프게 살아온 복이 없는 할미 역할과 일 치한다. 그리고 아래 눈두덩과 양 뺨, 윗입술에 주름이 여러 가닥이 나있다. 아울러 노인 장수를 상징한 흑반도 분장하였다. [표 3-4]

⁵³⁾ 강은주. 앞의 논문. pp.46~47.



[표 3-4]54) 할미탈

2. 봉산탈춤의 분장

봉산가면의 기본 재료는 종이이며 상좌, 묵중, 거사, 사당, 노장, 진장수, 원숭이, 취발이, 맏양반, 둘째양반, 셋째양반, 말뚝이, 영얄, 털머리집, 남강노인, 무당, 사자 등 34역이 탈춤에서 등장하고 조선시대의 불교 정책과 그때의 사회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묵증탈은 8개있어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

가면의 조형 속에서 특정계급 내부의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선택되어 한 인물 속에 압축됨으로써 강력하게 전형화 되었다. 가면이 지니는 표정의 다양성은 이런 관점에서만 올바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55) 이처럼 봉산탈춤의연희자들 가면을 끼고 주로 불교의 귀의한 것, 양반에 대한 모욕, 파계승에대한 풍자, 남녀의 갈등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봉산가면의 형태와 색채 다른 지역 보다 대담하게 만들었고 탈의 크기도 다른 지방보다 커서 사람들에게 시원스럽고 유쾌한 느낌을 주었다. 봉산가면 의 구체적인 분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한다.

⁵⁴⁾ 강은주. 앞의 논문. pp.46~47.

⁵⁵⁾ 이명진. 「봉산탈춤과 가무기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86. p.31.

1) 상좌탈 4개

상좌탈의 높이는 20cm이고, 너비는 14cm이다. 흰 바탕에 흑선으로 머리카락, 눈썹, 눈 테두리를 정교하게 그렸으며 둥그렇게 분장한 양 눈알을 뚫렸는데, 막히는 코가 오뚝하며 작은 입술은 붉게 칠하였다. [표 3-5]

2) 목중탈

목정탈 총 8개가 있으며 모두가 똑 같고 높이는 24cm이고, 너비는 18.5cm 이다. 주홍색바탕을 칠하였고 이마 쪽은 검은 색과 흰색으로 번갈아 내리그었으며, 하반부에는 검고 흰 점이 사이사이 많이 찍혀져있다. 이마 좌우에 뿔과같은 혹 2개 불거져 나왔는데, 혹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 혹 위에 금(金)지를 둥글게 붙였다. 눈썹은 흑, 백선으로 번갈아 내리그었다. 눈 테두리는 위에 올라가는 듯이 검은색으로 그렸으며 흰색으로 눈자위를 표현하였고, 튀어나오는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칠하였는데, 위에 금(金)지를 붙였다. 큰 콧등, 틱 아래와 입 좌우에도 금지를 붙이는 큰 혹이 분장을 시켰다. 그리고 입은열리고 뚫렸다. [표 3-5]





[표 3-5]56) 상좌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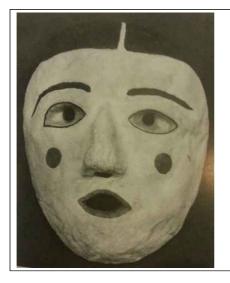
목중탈

3)첫째 소무탈

소무의 직업은 기녀이다. 첫 소무탈 높이는 24cm이고, 너비는 18.5cm이다. 소무의 분장도 자기 기녀 성격에 걸맞게 유혹적인 분장을 시켰다. 둥글넓적 얼굴 흰색바탕위에 붉은 연지, 곤지를 칠하였고 검은색으로 그려 가르마 머리를 탔고, 반달형 눈썹은 검은색으로 표현하였다. 검은색 눈 테두리 안에 흰 눈자위의 좌우 붉은색을 살짝 찍어서 더 고혹적인 느낌을 준다. 오똑한 코도 예쁘게 분장을 잘 시켜주었다. 작은 입 약간 벌리고 입술은 붉게 칠하였다. 소무를 상징하는 생산성과 역동성이 있는 붉은 치마를 입고 등장하였다. [표 3-6]

4)둘째 소무탈

둘째 소무탈의 높이는 21cm이고, 너비는 17.3cm이다. 둘째 소무의 분장과 첫째 소무의 분장 비슷하게 보인다. 단, 양 뺨에 곤지는 첫째 소무 보다 약간 크고 입도 말한 듯이 첫째 소무 보다 더 크게 벌려져 있다. [표 3-6]





[표 3-6]57) 첫째 소무탈

둘째 소무탈

⁵⁶⁾ 최장수. 앞의 논문. pp.77~108.

⁵⁷⁾ 위의 책.

5) 노장탈

노장은 늙은 중으로 파계승이다. 노장탈의 높이는 25.8cm이고, 너비는 19cm이다. 노장을 자신을 은폐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에 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렸는데 탈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 검푸른 바탕색에 흰 점을 무수 개 찍어, 또 4각으로 오린 금지도 무수 개 붙였다. 이마 쪽 양 눈썹 사이에 큰 혹을 만들고 금종이를 붙였다. 눈은 우묵하게 들어갔고 금색에 검은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을 둘렀고, 흰색으로 눈 테두리를 그렸다. 큰 콧등 위에도 길고 넓은 금지를 붙였다. 붉게 칠한 입술은 크게 불거졌다. [표 3-7]

6) 맏양반탈(샌님)

맏양반탈의 높이는 23.5cm이고, 너비는 15.3cm이다. 맏양반탈는 백색 얼굴 빛을 나는 뜻이 흰 바탕을 칠하였다. 이것은 그 때 사회적인 위치로나 개인적인 위치로나 안 좋은 건강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드라져 있는 눈썹 위에 흰털이 붙어 있다. 눈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그렸으며, 눈알은 금지를 발랐으며, 뚫려있다. 콧등에서부터 입술까지 한줄 붉은색을 칠하였고, 언청이 입술이며 입은 뚫렸다. 코밑 양쪽과 입 밑에 휘 턱 수엽을 분장하였다. [표 3-7]





[표 3-7]58) 노장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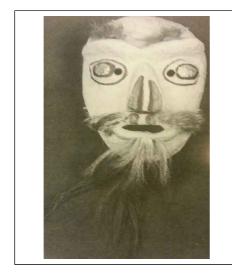
맏양반탈

7) 둘째 양반탈(서반님)

맏양반탈과 같으나 단 콧등에서 입술까지 두 줄 언청이 탈이며 높이는 23.5cm이고, 너비는 15.3cm이다. [표 3-8]

8) 셋째 양반탈(도련님)

흰색을 칠한 얼굴 바탕에 검은 머리를 그려 가르마를 탔다. 눈썹은 검색과 붉은색을 번갈아 내리그었고 위에 올라가는 눈자위는 희며, 동그랗게 생긴 눈알이 뚫렸다. 입술은 붉게 칠하였고 입이 비뚤다. 높이는 23.5cm이고, 너비는 15.3cm이다. 이처럼 양반가면들은 입술은 한, 두 줄 언청이, 입도 비정상적으로 비뚤어졌고. 이는 당시의 양반사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양반의 성격과 가면 극의 스토리에 걸맞게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표 3-8]





[표 3-8]⁵⁹⁾ 둘째 양반탈(서반님)

셋째 양반탈(도련님)

⁵⁸⁾ 최장수. 앞의 책.

⁵⁹⁾ 위의 책.

9)미얄할미탈

미얄할미탈의 높이는 23.5cm이고, 너비는 15.3cm이다. 미얄할미는 신할 애비의 늙은 마누라로 등장하는 가난에 찌든 촌부 역할이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든 체 흰 치마저리를 입고 등장하였고 자기의 생산성을 상실한 상태 역맞게 암시한다. 얼굴에 회과 검은 주근깨를 수없이 찍혔고 작은 사각형 금지도 무수 개 붙였다. 이마는 툭 튀어나왔고, 검은색으로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을 그렸다. 눈알은 동그랗게 생기며 뚫렸다. 입은 크게 비뚤어졌으며 뚫려있다. 입술은 붉은 색을 칠하였다. [표 3-9]

10)미얄영감탈

미얄영감탈의 높이는 25.8cm이고, 너비는 19cm이다. 미얄 영감가면은 사람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합죽이 얼굴을 분장하였다. 흰색을 칠한 이마에는 가로로 도드라지는 주름 3가닥 나왔으며, 눈썹에는 개털로 만든 흰 눈썹 털달고 우묵한 검은 금테를 돌리고 동그랗게 생긴 눈알이 뚫려져있다. 콧구멍은 크며 코밑에 수엽을 붙여서 입은 작게 나왔다. [표 3-9]





[표 3-9]60) 미얄할미탈

미얄영감탈

제 2 절 중국 가면극의 분장

1. 나희의 분장

중국의 나희는 원시 토템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사람을 중심으로 재앙을 쫓고 복을 비는 종교의식이다. 가면은 연희자와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신령의 상징이라 인식하며, 그 것은 신격화되어, 제의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따라서가면은 구나 의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사용되는 도구로도 쓰였다.⁶¹⁾ 민간에서도 '사람 가면을 쓰면 신선이 되고, 가면을 벗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서 가면은 나희에서 그 만큼 중요하다.

중국 나희의 가면 은 민간에서 '검각 (臉殼)' 또 '검자(臉 흑룡강성 子)'라고도 부르며 중국의 호남(湖 신강위구르자치구 南)、호북(湖北)、 안휘(安徽)、운남 (雲南)、광서(廣 티베트자치구 西)、 강서(江西)、 강소(江蘇)、복건 (福建)、산서(山 남성 사람서 장종자치구 광동성 西)、하북(河北)등 출처 : www. naver.com 지도 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귀주성(貴州省)은 지역적 환경、역사적 문화、민족민속 등의 원인으로 중국 나면(儺面)자원의 현존 수량이 가장 많고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중국 나희 가면의 구조는 온탈(全臉子)과 반탈(半臉子) 두 가지로 나눌

⁶⁰⁾ 최장수. 앞의 책.

⁶¹⁾ 강명군.「중국 한족의 나희과 한국 가면극의 벽사 진경 영상의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1.

수 있다. 온탈 크기가 대략 사람 얼굴의 오관 모양과 일치하고 길이가 43mm 이고 너비가 26mm정도이다. 그리고 이런 얼굴을 전부 가릴 수 있는 온탈과 얼굴 상부만 가릴 수 있는 반탈 서로 구분이 된다. 반탈은 길이가 37mm 혹은 40mm정도 이고 너비가 23mm 정도로, 이마위에 착용하고 입을 드러내기 때문에 연기자 연출할 때 얼굴의 표정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노래와 대사도 더 또렷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은 백양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다. 이런 나무들은 재질이 세밀하고 인성이 강하여 쉽게 갈라지지 않으며, 조각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벽사력도 지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희 가면 등장인물의 종류가 남、녀、노、소、문、무、귀、신、 승、도、축、동물까지 있어서 작용의 가면의 성격에 따라 정신(正神)가면, 흉 신(兇神)가면, 세속인물 가면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나 희에서 등장한 가면의 분장, 조형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 정신(正神)가면

정신 가면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온화한 신들의 가면이다. 예를 들어 토지신 (土地神), 화상신(和尚), 나공나모(儺公儺母), 당씨태파(唐氏太婆), 선봉소저(先鋒小姐) 등 있다.

① 선봉소저(先鋒小姐)

나희《패왕총선봉(霸王槍先鋒)》에서 나오는 인물이다. 전설에 의하면 선봉소저의 본명은 최양옥이라고 한다. 최홍이라는 남매간 있었는데 둘은 어릴 때 산실했다. 최홍은 이룡산에 가서 산 패왕이 되는데 최양옥이 처음에는 고전하였으나, 마침내 최홍을 붙잡았다. 문초했는데 산실한 오빠임을 알고 둘은 같이 도원동으로 돌아왔다.

선봉소저는 머리에 봉관(鳳冠)을 쓰고 얼굴은 풍만하고, 눈썹은 둥글고 눈은 수려하고, 앵두처럼 생긴 작은 입, 단정하고 웃고 있는 예쁜 미소녀이다.

이 가면은 아담한 노란색으로 칠하는데 여기 칠한 노란색원료는 구역을 할수 있는 중국의 한방약 웅황이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분장한 선봉소저의 가면은 사람들이 신성에게 숭배한 심리와 그 당시 가면 제작자의 심미 관념을 표현할 수 있다. [표 3-10]

② 당씨태파(唐氏太婆)

당씨선냥(唐氏仙娘)이라고도 부르며 나당희(儺戲堂)에서 중요한 신선이다. 전설에 의하면 당씨태파는 당나라 천자의 딸이었는데 외모가 추악한 까닭에 출가해서도 남편의 집에서 쫓겨났다. 옥황대제(玉皇大帝)이 안후에 신으로 봉 하고 도원동의 문을 지키며 감독하는 신이 되었다.

당씨태파의 가면은 농촌의 노파처럼 분장한 가면이다. 분장 특징은 이마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눈썹은 자상하고, 눈은 선하고, 입은 미소를 띠고 이빨은 듬성듬성 빠졌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질하여 정수리에 쪽을 졌다.62)가면 분장한 후 전체적인 이미지가 사람에게 존경심 많이 주는 높은 신선과 달리 접근감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온화하고 선량한 노파상이다. [표 3-10]

③ 토지신(土地神)

토지신은 한 지방을 주관하는 향신으로 재물과 복을 주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한다.

토지신의 가면은 동글 넓적한 얼굴위에 모자를 쓰고 부드러운 주름살을 가득하고 자애로운 눈썹과 선량한 눈이고, 양 귀는 두텁고 크며, 콧날은 짧고 콧구멍은 크며, 흰 수염은 길어서 자상하고 온화하며, 온건하고 신중하며, 정신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해학적이고 풍취가 있는 노상이다.⁶³⁾ 그리고 토지신 가면을 제작할 때 눈과 아래 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하기도 한다. [표 3-10]

⁶²⁾ 박진태. 「중국 귀주의 나당희 가면 연구」. 한국 중국 회곡 학희, 1998. p.262.

⁶³⁾ 위의 논문. p.263.



[표 3-10]⁶⁴⁾ 선봉소저 당씨태파

토지신

④ 화상신(和尚)

화상신은 소화상신(笑和尚)이라고도 부르며 나당희에서의 임무는 원주의 마음 성실한지, 품덕이 좋은지, 준비 작업이 합격되었는지의 여지를 검사하는 일이다.

가면 분장은 웃는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친절한 느낌을 많이 주었 다. 얼굴은 풍만하고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하여 입 크게 웃고 있고 가지런한 하얀 이빨을 드러내다. 그리고 이마에서 복을 상징한 혹이 있어서 호감을 갖 는 골계적인 얼굴이다. [표 3-11]



[표 3-11]⁶⁵⁾ 화상신

⁶⁴⁾ 朱鈺.「土家族儺戲面具藝術研究」. 昆明理工大學, 2010. p.21.

2) 흉신(兇神)가면

흉신 가면은 용맹스럽고 위엄이 있는 신들의 가면이다. 그런데 '흉신'이라는 말은 보통 흉악한 신선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얼굴은 흉악스럽지만 마음은 선량한 것을 나타낸다. 대표한 흉신은 개산망장(開山莽將), 개로장군(開路將軍), 이랑신 등 있다.

① 개산망장(開山莽將)

요괴를 진압하는 무장이며 오방의 귀신과 10방의 악마를 죽이고 출병하여 전투를 벌이는 신이다. 앞에 전신 가면의 사실적 분장표현기법과 달리 대담하 고 과장스러운 표현기법을 사용하며 가면의 윤곽을 호방하고 색깔은 농후한 까만색이나 빨간색으로 사용한다.

가면의 머리 위에 소처럼 직립하는 붉은 뿔이 두 개 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입 밖으로 삐져나온 4개 날카로운 송곳니로 위엄과 용맹을 부각시키고 튀어나온 둥근 눈알과 화염상의 눈썹을 새기고 귀가 이마위에 넘어가서 괴이하고 황탄하게 생겨서 관중들에게도 충격을 준다. 개산망장은 원수를 미워하는 성격을 표현하지만 사실 요괴를 물리치는 용맹스러운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분장 반드시 요괴들이 겁을 낼 수 있도록 무섭게 흉악하게 해야 된다. [표 3-12]

② 개로장군(開路將軍)

개로선봉(開路先鋒)이라도 부르며 권선징악의 선도신이다. 나당희에서의 임무는 산이 막으면 길을 내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나가가는 길에서 사악한 마귀를 나타나면 악귀도 죽인다.

개로장군의 가면 분장은 앞에 개산망장의 가면분장과 너무 유사하다. 등근 눈알이 튀어나오고, 사나운 상순 밑에 송곳니가 분장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

⁶⁵⁾ 위의 논문, P22.

나오는 뿔이 개산망장보다 하나 더 빠졌다. [표 3-12]

③령관(靈官)

령관 즉 련관왕이라는 유명한 도교의 호법신인데, 원래의 임무는 천하인간 을 규찰하는 일이며 맡은 직무는 나당에 침입한 요괴를 수색하며 체포하는 일이다.

령관은 머리 위에 도관을 쓰고 부릅뜬 눈, 이마에 "縱目"이라는 赤眼 한 개 있고 사나운 송곳니로 위엄을 부각시키고 얼굴 정체적으로 흉맹한 적홍색 으로 칠한다. [표 3-12]



[표 3-12]⁶⁶⁾ 개산망장 개로장군

령관

④ 구원판관(勾願判官)

구원판관은 구부판관(勾簿判官)이라고도 부르며 나당희에서의 직무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악인이나 요괴를 징벌하는 일과 사람에게 원망을 이루는 일 이 한다.

가면 머리위에는 관리가 쓰는 제모를 쓰고 가면 전체를 검은 색으로 칠하

⁶⁶⁾ 朱鈺. 앞의 논문. p.23.

여 얼굴은 근엄하며 눈은 크고 둥글며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져 있어 공 평무사한 판관의 성격을 부각시킨다. [표 3-13]



[표 3-13]67) 구원판관

3) 세속인물 가면

세속인물 가면은 신기(神氣)나 귀기(鬼氣)가 전혀 없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촉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세속인물 가면은 정각(正角)가면과 축각(丑角)가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각 가면은 과장됨과 변형 없이 오관이 단정한 가면이다. 예를 들면 매향(梅香), 감생팔랑(甘生八郎) 등 있다. 이런 사실적인 표현기법을 쓰는 정각 가면은 앞에 정신 가면과 비슷한데 분장은 정신 가면 보다 더 세속적이다. 축각 가면은 바보스럽고 과장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나당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골계적 가면이다. 예를 들면 진동(秦童), 연로구(權路狗)등이 있다.

① 감생팔랑(甘生八郎)

나당희에서의 임무는 원주를 위해서 還願領性하는 일이다. 감생의 분장은 머리위에 둥근 공형 액세서리가 있는 관모를 쓰고, 오관이 청수하고, 귀가 크 고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는 소박하고 순진한 선비의 이미지이다. [표 3-14]

⁶⁷⁾ http://wy.seezy.com/pic_show.asp?ID=77&Page=5 검색일: 2013.04.12.

② 진동(秦童)

전설에 의하면 감생이 경성으로 과거시험 보러 갈 때 짐꾼으로 고용했는데, 감생은 시험에서 낙방했는데 오히려 진동이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익살스러운 희극적 색채가 충만한 스토리이다.

진동의 분장을 보면 상투부터 비뚤어지고, 사팔 뜨고, 입은 비뚤어져 있고, 곱추, 절름발이로 추악한 분장을 했다. 그리고 진동은 좌우비대칭의 분장표현 기법을 쓰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다. 예를 들면 상투를 틀기도 하지만 모자를 쓰기도 하고, 입이 왼쪽으로 틀어지기도 하지만 오른쪽으로 틀어지기도 하며, 두 눈이 둥근 눈이나 실눈으로 똑같기도 하지만, 한 쪽 눈은 실눈이고 다른 쪽 눈은 둥글게 떠서 짝눈인 경우도 있다.68) [표 3-14]

③ 연로구(攆路狗)

진동의 형제이다. 가면은 턱이 없는 반 가면이며 진동 가면처럼 과장한 분 장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좌우가 비대칭이다. 상투를 틀었으나 비뚤어지지 않고 위로 가지런하게 만들었으며 눈썹과 눈은 온화한 표정을 지니는 가면이다. [표 3-15]

위에서 살펴본 가면들 분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봉소저, 당씨태파, 토지신, 화상 등 같은 신선 가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친밀감으로 줄 수 있는 자애로운 눈썹과 미소를 띤 사실적 분장을 한다. 반면에 개산망장, 개로장군, 령관, 구원판관 같은 흉신 가면들은 대체로 사람에게 사납고 위험이 있는 용맹스러운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면들이다. 보통 머리 위에 뿔이 한, 두 개가 나오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입 밖으로 삐져나오고 눈썹은 화염상을 부각시키고 눈알도 튀어 나온 모습으로 과장한다. 그리고 감생팔랑처럼 좌우비대칭의 바보스러운 축각 세속인물 가면과 감생처럼 사실대로 나오는 정각

⁶⁸⁾ 박진태, 「중국 귀주의 나당희 가면 연구」, 한국 중국 희곡 학희, 1998, P265.

가면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 그 뿐만 아니라 정신가면과 세속인물 가면은 웃 는 가면(골계면)과 흉신 가면의 무서운 가면(분노면)으로 서로 분화. 대립되어 졌다.



[표 3-14]⁶⁹⁾ 감생팔랑 진동 [표 3-15]⁷⁰⁾ 연로구

2. 경극의 분장

경극 분장의 유형은 칠행칠과(七行七科)의 변화를 통해 정리된 4대행당(行 當)인 생(生), 단(旦), 정(淨), 축(丑)으로 형성되었고 이에 4대 행당중 남자배 역의 생(生)과 여자배역 단(旦) 하는'미화화장'과 성격파 배역 정(淨)과 어릿 광대 배역의 축(丑)하는 '성격분장'으로 나눌 수 있다.

미화화장은 먹으로 눈 화장을 하고 연지로 얼굴을 발라 극중 인물의 단정 하고 준수한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한 화장으로 준분(俊扮)이라고도 한 다. 또한 '결면(潔面)' 또는 '소면(素面)'이라고도 부른다.

생과 단의 화장은 비록 현란한 색과 도안을 사용하지 않지만 극중 인물의 연령, 문무의 차이, 신분에 따라 화장법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남성 배 역인 생 가운데 일반 청장년은 미간과 눈언저리, 양 쭉 뺨에 붉은 색을 짙게

⁶⁹⁾ 朱鈺. 앞의 논문. p.24.

⁷⁰⁾ http://wy.seezy.com/pic_show.asp?ID=77&Page=5 검색일: 2013.04.12.

바르는 반면 엷게 바른다. 또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짙게, 명약하고 빈곤한 사람은 엷게 바른다.⁷¹⁾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되는 얼굴 분장은 특별히 배역 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아서 '천인일면'의 특징이 있고 인물의 개성은 주로 배역의 연기와 복식 등으로 표현한다.

이에 비해 개성파 연기의 주인공인 정축 배역은 강렬한 극중 인물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에 자신의 배역에 맞는 화장을 바로 검보(臉譜)라 한다. 검(臉)은 얼굴의 의미하고, 보 (譜)는 형식, 계보를 의미하며 과장된 색과 도안된 성격화장을 발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 축의역할을 맡은 등장인물들이 지니는 성격을 바탕으로 색채, 눈썹의 형태, 눈의형태, 이마의 형태, 입의 형태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분장으로 완성되어 관객들은 무대에 등장한 배우의 얼굴 화장을 보고 그 배역의 품성과 성격을 알 수 있다.

1) 경극 검보 분장의 방법에 따른 분류

경극 검보에서 분장의 방법에 따라 유검(揉臉), 구검(勾臉), 말검(抹臉), 파검(破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유검

유검은 손에 색깔을 묻혀 얼굴에 물들이게 문지르고, 물들임이 고르게 바른다음, 다시 붓으로 중요부위에 선을 굿은 분장방법이다. 예를 들어 〈(三國演義)〉에서 관어(關羽)는 유(揉)의 기법으로 홍색 분장을 한다.

② 구검

구검은 유검과는 달리 처음부터 화필에 색깔을 묻혀 거울을 보고 특정한 얼굴 분장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기본 순서는 눈썹과 눈, 다음에 입아귀, 얼굴 의 무늬를 그려 넣은 후 얼굴의 윤곽에 색을 채워 넣는 분장방법이다. 구검은

⁷¹⁾ 차미경, 2005, 상징의 미학, 경극, 도서출판 신서원, p69.

색채가 아름답고 도안이 화려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면〈서유기(西遊記)〉의 금 전표(金錢豹)는 구(勾)의 기법으로 분장을 한다.

③ 말검

말검은 말채라고도 불리며 얼굴에 먼저 손바닥의 중앙에 골고루 묻힌 흰도란을 문지른다. 그 다음에 얼굴의 양 볼에 빨간 도란을 칠하고 문지름이 적당하면 물기가 없는 백분(白粉)나 연지(胭脂)를 바른다. 말검은 얕은 색깔이말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삼람의 본심을 숨기는 것을 뜻하는데 교활하고 간사한 나쁜 사람의 특성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말검은 가식적인 분장이라고도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군영회(群英會)〉의 조조(曹操)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하양 粉臉을 한다.

④ 파검

파검은 유(揉),구(勾),말(抹) 어느 방법을 운용하는지 상관없지만 얼굴은 좌우 대칭되지 않고 얼굴이 추하고 부정적인 인물을 그려내는데 적합한 분장이다. 예를 들어〈삼타도삼춘(三打陶立春)〉의 정자명(鄭子明)는 성격이 추악하고 탐육스러운 파검으로 분장한 유명한 인물이다.

2) 경극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① 정검(整臉)

정검은 안면 분장의 매우 흔히 보이는 원시적인 보식이다. 얼굴에 한 가지 색(흑색, 흰색, 붉은색)을 칠하여 눈썹, 눈, 코, 입 등 주요 부위 외에 그얼굴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주름, 근육 등에 선을 그린다. 예를 들어 조조(曹操)의 검보는 흰색을 기본 색채로 하고 관우(關羽)의 검보는 붉은색을 기본 색채로 칠한다. 또 '흑정검(黑整臉)'이라고 하는 포증(包拯)도 있다. 포증의

검보는 흑색을 기본 색채로 칠하기 때문에 다시 흑색으로 오관을 안 칠하고 대신에 흰색으로 눈썹, 안와를 표시한다. [표 3-16]

② 삼괴와검(三塊瓦臉)

삼괴와검은 정검의 기초에서 눈썹, 눈과 코 주위를 과장하고 얼굴을 세부분으로 나눠서 이 모양이 세장의 기와처럼 반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삼괴와검(三塊窩臉)이라고도 한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세 가지 색채로 칠하고 그 위에 눈썹, 눈, 코, 입 등을 라인을 이용해 돌출되도록 그리며 원래의 전체적인 얼굴의 형식으로부터 입체화로 발전했다. 장식의 색깔이나 무늬의 복잡함 정도에 따라 정삼괴와검(正三塊瓦臉), 첨삼괴와검(尖三塊瓦臉), 화삼괴와검(花三塊瓦臉), 노삼괴와검(老三塊瓦臉)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철용산(鐵龍山〉〉중 있는 강위(姜維)의 분장은 '적정삼괴와검(紅正三塊瓦臉)'이고 〈도어마(盜禦馬)〉중 있는 도아던(竇爾敦)은 '청화삼괴와검(青花三塊瓦臉)'이라고 한다.[표 3-17]

③ 육분검(六分臉)

정검에서 발전되고 특징은 이마의 주색을 하나의 입주(立柱)색채로 압축하여 주색으로 하여금 온 얼굴 전체의 10분의 6을 차지한다. 그래서 '육분검'이라고 한다. 또는 이마의 주요 색상을 한 가닥 색상으로 줄여 좌우 양 쪽에 많은 공간을 남겨주어 노인들의 짧아진 눈썹을 돌출시키기 때문에 연장자들 많이 사용한 검보이 되고'노검(老臉)'이라도 부른다. 예들 들어〈군영회(群英會)〉중에 있는 황개(黃蓋)의 분장을 보면 얼굴의 바탕색은 자홍색으로 칠하고 그위에 눈, 입, 코의 화장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일부러 과장된 흰 눈썹을 살짝까지 연결 시켜서 긴 하얀 수염과 상응하게 하여 그의 충실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노장(老將)을 상징한다. [표 3-17]

④ 십자문검(十字門臉)

십자문검은 삼괴와검에서 발전된 형식이다. 분장의 특징은 이마의 주요 색상을 줄여 단지 코끝에서 이마쪽으로 일직선을 그려, 안와 선을 가로질러 십자형을 만들어져서 이처럼 이름 지어졌다. 이렇게 얼굴에 많은 공간을 비워서 분장하는 목적은 인물의 얼굴 윤락을 돌출시켜 인물의 신비스러운 자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는 '화십자문검(花十字門臉)'과 '노십자문검(老十字門臉)' 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초교관(草橋關)〉중에 있는 요기(姚期)는 '흑십자문노검(黑十字門臉)'이라고 하고 〈로화탕(蘆花蕩)〉의 장비(張飛)는 '흑십자화검(黑十字門花臉)'이라고 한다. [표 3-17]

⑤ 쇄화검(碎花臉)

쇄화검은 화삼괴와검(花三塊瓦臉)에서 변화되고 기본 색상은 이마에 있고 두 볼의 주색을 빼고 보색으로 문양을 그린다. 색채가 풍부하고 구성한 도안가 다양하며 선이 작고 복잡해서 '쇄화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쇄화검은 대부분 무장과 영웅호걸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인물의 부정적 성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흑선풍(黑旋風)〉중에 있는 이규(李逵)는 '흑수화검(黑碎花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덤벙거리는 솔직한 성격을 상징한다. 또〈취락양(取洛陽)〉중에 있는 마무(馬武)는 '청수화검(青碎花臉)'이나 '녹수화검(綠碎花臉)'을 분장하여 이 영웅적 인물의 솔직한 성격을 표현한다. [표3-18]

⑥ 원보검(元寶臉)

앞이마 부위에 원래의 피부색이나 붉은 색을 칠한 얼굴의 색깔과 다르고 모양이 원보(元寶)같음으로 '원보검'이라고 한다. 원보검은 또 보통원보검(普 通元寶臉), 도원보검(倒元寶臉),화원보검(花元寶臉)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예 를 들어〈정기가(正氣歌)〉중의 있는 이청지(李庭芝)은 원보검이다.

보통원보검은 분장하는 신분이 높지 않은 무인(武人),편장(偏將),중군(中軍) 등 하층 인물의 면과 소심한 면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화원보검은 원보검으로 발전하여 온 것으로 기본은 원보검 형식이며 단지 근육 무늬외의 표현이 원보검보다 더 많이 복잡하다. 이런 분장의 이마는 붉은색 혹은 금색, 남색 혹은 흰색으로써 보색으로 칠하고 검은색은 주색으로써 두 볼에 있는데 많이 사용하며 검은색 가운데서 흰색으로 눈썹과 눈, 코언저리 등에 섬세하게 근육을 분할한다. 대표한 배역의 분장은 〈종규가매(鍾馗嫁妹)〉라는 극에 나오는 종규의 분장과 〈화용도(華容道)〉중의 주창(周倉)의 분장이 있다.[표 3-18]

⑦ 왜검(歪臉)

이름 그대로 이러한 종류의 검보는 비대칭적으로 칠해지는데 사랑들에게 비뚤어진 느낌을 주며 이는 배역이 달성하기 위해 비뚤어진 방법을 사용하는 용모가 추가거나 흉악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발상이다. 예를 들어 〈참황포(斬 黃袍)〉중에 있는 정자명(鄭子明)은 젊을 때 사람을 구하는데 얼굴을 크게 다쳐서 알록달록한 얼굴형 중에서도 비뚤어진'흑수화검'형식의 왜검을 사용한다. [표 3-18]

⑧ 상형검(象形臉)

상형검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화의 체재에서 사용하며 여러 정령, 신화와 요괴의 특징에 근거하여 구도와 색채를 사용하였기에, 상형검은 다른 검보와 달리 고정된 검보가 없다. 새나 짐승, 야비한 부족, 곤충 등 '악마의 형상'을 생동하게 묘사하는 것을 중요하여 관객들이 한눈에 보고 신선과 요괴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련등(寶蓮燈)〉중에 있는 이랑신 양전(二郎神楊戩)의 요천견(哮天犬), 또 금두대신이 있다.[표 3-19]

⑨ 신선검(神仙臉)

신선검은 삼괴와검에서 발전된 형상으로 신선과 불의 용모를 주로 표현한

다. 색채는 주로 금색과 은색의 패턴의 선만 긋고 신성하고 위엄한 느낌을 상징하며 관객들이 한눈에 보면 어떤 요정이나 괴물인지 알게 한다. 예를 들어〈필마온(弼馬溫)〉중에 있는 옥황대제(玉皇大帝)은 신선 얼굴형이 있다. [표 3-19]

⑩ 승도검(僧道臉)

승도검은 '승려검(和尚臉)'이라고도 부르며 삼괴와검과 비슷한다. 일반적으로 콩팥 형태의 안와, 화 코와, 화 입아귀와 앞이마중심 부분에서 붉은 원형주(珠)나 9개 점을 그려 불가에서는 수계함을 나타낸다. 색채는 백, 적, 황, 청 등 사용하여 백색이 제일 흔히 보인다. 예를 들어〈야저림(野豬林)〉중에 노지심(魯智深) '백승검'을 사용하고 수사(修士)와 도교(道教)의 특수한 신분을 나타낸다. 또 〈파락화(巴洛和)〉중에 잇는 황반(黃胖)은 '황승검'을 쓴다. [표 3-19]

⑪ 태감검(太監臉)

삼괴와검의 일종인데 태감의 특징을 과장되게 표현한다. 뽀쪽한 눈썹은 그의 간사함, 식칼 형태의 안와는 백성을 재할함, 또 아래로 삐죽거린 입아귀가 잔인한 성격을 표현한다. 앞이마 중심부분에서 점을 하나 그리고 불문(佛門)으로 귀의하는 상징이다. 앞이마와 양 뺨에 있는 비만 때문에 생기는 무늬는 높은 지위에서 부유한 생활 누리는 모습이 강조되는 것이다. 색채는 홍과 백두 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법문사(法門寺)〉중의 류근(劉瑾)의 검보는 홍색을 기본 색채로 칠하고 눈썹, 눈, 입은 흑색을 그려서 그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백성을 폭정 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또 〈황금태(黃金台)〉중에 있는 이립(伊立)이 있다. [표 3-20]

② 축각검(丑角臉)

축각검은 삼화검(三花臉)및 소화검(小花臉)이라고도 부르는 우스운 효과를 맡은 배역이다. 특징은 콧마루의 중심에서 한 백색 두부괴(豆腐塊)를 그려서 이는 역할에 따라 사각형, 원형, 삼각형, 삼각형 혹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다르게 칠할 수 있고, 그려지는 눈, 눈썹, 코, 입과 같이 조합하고 안면표정 다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익살스러운 사기꾼과 괘씸한 깡패, 사랑스러운 어린이, 부패한 관리와 공정한 판관도 표현한다. 그러므로 축각검을 사용한 캐릭터의 종류가 문축(文丑), 무축(武丑), 노축(老丑), 악축(惡丑), 소축(小丑)등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어 〈군영회(群英會)〉중에 있는 장간(蔣干)과 〈법문사(法門寺)〉중에 있는 가계(賈桂)는 소축 검을 분장하여 표현한다. [표3-20]

③ 영웅검(英雄臉) 소요검(小妖臉)

영웅검은 영웅의 얼굴 아니라 권법과 봉술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격투를 하는 인물의 검보를 말하는 것이다.

소요검은 신화에 기초한 악극에서 천계의 천장(天將)과 소요(小妖)등 배역을 분장한 검보이며 기본적으로 상형검지만 아주 단순하여 극중의 주요 인물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보조역의 분장하는 검보이다. [표 3-20]



[표 3-16]72)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표 3-17]73)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72)「}中國京劇臉譜」. 2001. pp.37~168. 73)「中國京劇臉譜」. 앞의 책. pp.37~168.



[표 3-18]74)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74)「}中國京劇臉譜」. 앞의 책. pp.37~168.



[표 3-19]75)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75)「}中國京劇臉譜」. 앞의 책. pp.37~168.



[표 3-20]76) 검보 분장의 유형에 따른 분류

^{76)「}中國京劇臉譜」. 앞의 책. pp.37~168.

3) 경극 검보 분장의 기법에 따른 분류

① 눈썹

눈썹은 검보 중 그 인물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를 차지하고 있다.

a. 본미(本眉)

본미의 화장법은 배우의 진짜 눈썹의 색채와 형태에서 조금의 눈썹을 그려주는 방식이다. [표 3-21]

b. 직미(直眉)

직미는 악인을 표현한 분장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며 삼각뿔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모양의 눈썹이다. [표 3-21]

c. 노미(老眉)

노미는 눈썹 형이 관자놀이 부분까지 와서 아래로 길게 처져있고 일반적으로 백색 수염을 붙이고 노인에게 사용한 눈썹이다. [표 3-21]

d. 점미(點眉)

점미는 노미형태과 같이 운용하며, 주로 이마 부분에 두 개의 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표현한 눈썹이다. 점미는 단순히 나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 [표 3-21]

e. 간미(奸眉)

간미는 영미(簿眉)라고도 하며 흉악하다는 뜻도 있고 눈썹을 찡그림으로 부정적인 인물의 사악하고 간사한 모습을 그려내기도 한다.[표 3-21]

f. 응미(凝眉)

간미처럼 악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눈썹 분장한 특징은 한쪽 미간은 위로 치켜 뜬 형태이고, 한 쪽 미간의 커브 는 밑으로 쳐진 형태이다. [표 3-21]

g. 거침미(鋸齒眉)

거치미는 눈썹을 톱니처럼 들쑥날쑥하게 그리며 주로 거칠고 푹력적인 인 물의 야수성을 표현한다. [표 3-21]

h. 랑아미(狼牙眉)

늑대이빨 눈썹은 톱니 눈썹과 유사하고, 앞쪽에 있는 각 모양의 모습이 뒤쪽의 것 보다 크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3-21]

i. 압단미(鴨蛋眉)

형태가 오리알처럼 갸름해서 압단미이라 부르며 큰 눈을 가진 배역의 인물을 위해 사용된다.

j. 봉퇴미(棒槌眉)

곤봉 모양의 형태의 분장으로, 주로 승려나 도인의 역할에 쓰인다. [표 3-21]

k. 접시미(蝴蝶眉)

호리호리한 곡선형의 모양을 취하며 눈 주위의 분장도 나비날개의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표 3-22]

1. 와잠미(臥蠶眉)

와잠미는 주로 광우(關羽)의 검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눈썹이다. 원래 중국의 민간설화에서 나타나는 당봉안과 누에고치 모양의 눈썹으로 표현한다. [표 3-22]

m. 작미(勻眉)

작미는 두 개의 국자모양으로 눈썹을 그리며 포증(包拯)만 사용할 수 있는 눈썹이다. [표 3-22]

n. 일자미(一字眉)

일자미는 양쪽의 눈썹을 하나로 연결하여 그리며 나음에 단순하거나 난폭 한 성격의 인물을 상징한 눈썹이다. [표 3-22]

o. 만자미(萬字眉)

만자미는 패왕 항우(項羽)의 눈썹은 卐자형인데, 지금은 이 눈썹을 장수의 수(壽)자가 변화되고 장수를 의미하는 분장으로 변형되어 왔다. [표 3-23]

p. 호로미(葫蘆眉)

호리병의 형태이고 호로대왕(葫蘆大王)과 화호로(花葫蘆)맹량(孟良)과 같이

전투에서 큰 군대를 이끄는 전사(戰士)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표 3-24]

g. 유엽미(柳葉眉)

유엽미는 본미에서 변화해 나왔으며 버드나무 잎처럼 생기며 주로 환관과 같이 남성이면서도 남성의 특성이 부족한 인물을 강조할 때 쓰이는 분장이다. [표 3-24]

r. 도랑미(刁螂眉)

도랑미는 사마귀가 집게로 빌고 있는 형태를 닮았다하여 당랑미(螳螂眉)라고도 부르고, 포악하고 싸움을 좋아한 성격을 나타날 때 쓰이는 분장이다. [표 3-24]

s. 칼미(刀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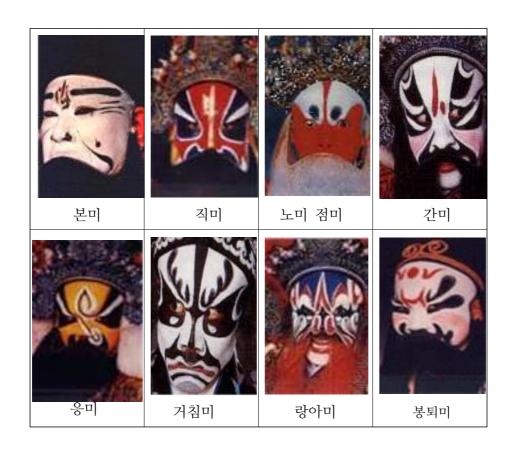
칼형 눈썹은 마치 군도(軍刀)의 날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다. 주로 충직하고 용감한 인물을 나탈낼 때 표현된다. [표 3-24]

t. 호두구미(虎頭鈎眉)

호두구미는 호랑이 갈고리 눈썹으로 도아던(竇爾敦)에 유일하게 쓰인 눈썹이다. 그는 이 눈썹을 닮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표 3-24]

u. 하경미(倒垂眉)

눈썹의 형태가 아래로 처진 형태이미 악인이거나 유령, 귀신을 나타낼 때 쓰이는 눈썹이다. [표 3-24]



[표 3-21]77) 눈썹



[표 3-22]78) 눈썹

⁷⁷⁾ 류위, 「중국 경극분장의 예술적 특징과 시각적 요소를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2008, pp.34-35.

⁷⁸⁾ 위의 논문. pp.34~35.



[표 3-23]79) 눈썹

② 눈(안와 眼窩)

눈을 안와(眼窩)이라고 부르며"눈은 영혼의 창(窗)"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경극에서 등장인물 눈의 형태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고 넓은 눈을 가진 인물의 특성은 무모하고 대담하다. 가늘고 긴 눈을 가진 등장인물은 점잖고 보수적이다. 눈꼬리가 위로 치켜 몰라간경우 대부분 간사하고 교활하다. 작고 째진 눈은 여지없이 사악한 본성을 나타낸다. 경극에서 가장 보편적인 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간안와(奸眼窩)

⁷⁹⁾ 류위. 앞의 논문. pp.34~35.

는 모양은 길고 는 꼬리 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가늘어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적은 양의 검은색을 그려준다. 그 역할이 음험하면 할수록 더 가늘어지고 경극에서 백검(白臉)의 분장한 조조(曹操)와 같은 간사한 사람에게 주로쓰인다. [표 3-24]

b 대간안와(大奸眼窩)

이 패턴은 앞에 간안와보다 크며 매섭게 응시하는 모양으로서 악한 장수 역할에 사용되다. [표 3-24]

c 직안와(直眼窩)

삼괴와검(三块瓦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직사각 형태와 등근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각 형태의 눈은 성격이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성격과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을 표현한다. [표 3-24]

d 노안와(老眼窩)

노인의 눈초리가 아래로 처지는 모습이다. 항상 노미(老眉)와 같이 어울려 그리며 삼괴과검 (三块瓦脸) 에서 자주 사용하는 눈의 형태이다. [표 3-24]

e 환안와(環眼窩)

둥근 모양으로서 표범을 연상시키는 이 눈은 성급하고 난폭한 성격을 나타 낸다. [표 3-24]

f 요자안와(腰子眼窩)

형태가 신장(콩팥)라 비슷한 눈은 수도승의 역할과 같이 특수한 특성을 나타내며 항상 봉퇴미(棒槌眉)와 같이 그려준다. [표 3-24]

g 당봉안와(丹凤眼窩)

와잠미(卧蚕眉)과 같이 관우(關羽)만 사용할 수 있는 안와이다. [표 3-24]

h 소안와(笑眼窩)

안쪽 눈초리가 아래를 향하여 처지는 웃고 있다는 사람의 눈 모양이다.[표 3-24]



[표3-24]80) 검보 안와

⁸⁰⁾ 류위. 앞의 논문. p.36.

제 4 장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전통적 특성의 유사성과 차별성

제 1 절 색채

각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서서히 내재되어 표현되어 온 자국만의 고유한 색채 관념과 문화색채를 가진다. 특히 전통극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내포한 중합예술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각 나라의 문화적 요소가 내포된 색채특성을 가지고 있다.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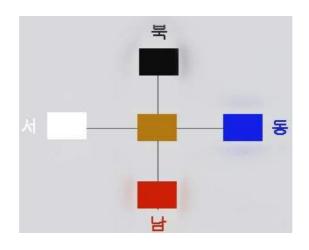
다음은 한국과 중국 가면극에 나타난 색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동양의 전통색은 오양오행설을 많이 따르고 있다. 음양오행설의 기본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 발생되었는데 이는 조화로운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순리를 담는데 목적이 있다.82)

음양오행설은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세계관으로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서 양의 하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의 땅이 성립된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화, 수, 목, 금, 토를 넣어서 오시가 차례로 운행된다. 오기가 순차적으로베풀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운행된다. 음양오행설에 풀어낸적, 청, 황, 백, 흑은 기본색을 정해서 정색, 또 오방색이라고 부른다. 그리고사방과 중앙을 기본으로 오방이 설정된다. 이 양에 대해서 대응되는 음에 해당하는 색은 오방 곧 동, 서, 남, 북, 중앙 사이에 색을 놓여 녹, 벽, 유황, 자를 정해 오방간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동방의 청색과 중앙의 황색의 간색으로서의 녹색, 동방의 청색과 서방의 백색의 간색 백색, 남방의 적색과 서방의 간색 홍색, 북방 흑색과 중앙 황색의 간색 유황색, 북방의 흑색과 남방의적색과의 간색 자색이다. 〈그림 4-1〉

⁸¹⁾ 김지언. 「한 • 중 전통극에서의 색채문화비교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2009. p.6.

⁸²⁾ 김수욱.「한국 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8.



〈그림 4-1〉83) 음양오행사상

1. 한국 가면극 색채의 전통적 특성

한국가면극의 전통색채는 중국 음양오행사항의 영향으로 오방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가면극의 색채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무채색을 많이 사용한다. 18세게 조선시대 황제는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황색옷 입고 평민들이 백색 옷을 즐겨 입어 이것 바로 한국 '백의 민족'의 유래이다. 백색을 승상하고 금욕적인 인격 지향의 인생관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회탈춤의 할미는 흰 민저고리,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 수건도 회색을 선정하였고 분장시켰다. 또 중은 흰 바지 행전, 희색 장삼을 입어서 등장하였다. 이 처럼 하회탈춤의 배역의 의상 대부분 수수한 무채색이고 각 역할의 성격에 맞게 신분표시하고 있다.

봉산탈춤의 취발이의 의상은 붉은 색을 많이 나타낸다. 한국에서 적색(炎色)은 불의 색으로써 태양, 피 색을 듯하며, 벽사의 의미를 지니다. 취발이를 입은 붉은 원동, 붉은 바지는 새로운 생명을 상징한다. 또 젊은 취발이와 오 방색옷을 입는 고무와 겨울에서 농사도 못 짓는 흑색 영감, 미얄과 대비가 된다.

⁸³⁾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385&docId=1730380&mobile&categoryId=4385 검색일: 2013.05.20.



<그림 4-2>84) 하회탈춤 할미



〈그림 4-3〉⁸⁵⁾ 하회탈춤 중



〈그림 4-4〉86) 봉산탈춤 취발이(좌)소무(우)

⁸⁴⁾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0831&mobile&categoryId=200000425 검색일: 2013.05.22.

⁸⁵⁾ http://cafe.naver.com/dongyang19/491 검색일: 2013.05.30.

⁸⁶⁾ http://blog.naver.com/cube53?Redirect=Log&logNo=110041500406검색일: 2013.05.06.

2. 중국 가면극 색채의 전통적 특성

중국 가면극은 한국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의 영향으로 특히 경 극에서 상오방색과 하오방색을 나눠서 많이 사용한다.

중국의 전통색은 홍색이 가장 대표적이고 중국 가면극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나(儺)를 주관하던 방상씨(方相氏)의 검정 윗옷과 붉은 치마에서부터 한 (漢)대의 대표적 연극인「동해황공(東海黃公)」의 붉은 의관과 당(唐)대의 가무희 「踏謠娘」에서 소중랑(瀟中郎)의 붉은 옷과 모자 그리고 풍자극「참군희(參軍戲)」에서 참군(參軍)이 입은 녹색 의상까지 모두가 울굿불굿한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7) 의상은 홍색을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희에서 구나(驅儺)성공한 다음에 경사를 베풀 때에도 길조 상징하는 홍색을 사용한다. 〈그림 4-5〉



〈그림 4-5〉88) 홍색 나당(儺堂)

나면(儺面)의 색깔은 경극 검보 그만큼 하려하지 않고 수수한 색깔이 많이 사용된다.

⁸⁷⁾ 차미경. 「경극」. 신서원, 2005. p.107.

⁸⁸⁾ 呂媛媛. 앞의 논문. p.46.

중국 경극의 검보와 의상은 주로 채도가 높으며 강렬한 색채 대비를 쓰고 있어서 배역의 신분과 지위, 나이,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극 검보의 백색은 위험하거나 배신하는 인물로 부정적 의미이고 의상의 백색은 충신을 상징하며 무예가 뛰어난 장군을 상징한다; 검보의 검정색은 성실한 배역을 의미하며 의상의 검정색은 최고의 책임자나 제후, 후작, 지위가 높은 무장을 상징한다; 검보의 홍색은 충성스럽고 절개가 굳으며 성실하고 정직한 인물을 의미하며 의상의 홍색은신분이 높은 승상, 황친 등을 상징한다.

위에 비교분석 통한 한국과 중국 가면극 색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나 한국 가면극의 색채는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고 오방색 많이 사용한다. 또 색깔마다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한국 가면극은 무채색 많이 사용하며 소박하고 자연스러워 관측자로 하여금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으로 표현한다.

셋째, 중국 경극은 유채색 많이 사용하며 채도가 높으며 색채대비가 한국보다 강하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관측자로 하여금 에너지 소모가 많은 색이다.

넷째, 중국 나희의 색깔은 경극만큼 화려하지 않다.

제 2 절 의상

1. 한국 가면극 의상의 전통적 특성

한국 가면극에서 등장인물의 복식은 분장과 같이 등장인물의 성격, 인격 등을 관객에게 드러내주며, 연극의 극적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또 복장과 분장을 통한 가면극의 줄거리와 역할에 맞게 도출하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적 역할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 하회탈춤과 봉산탈춤에서 배역 의상의 특징 및 색깔 등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하회탈춤 등장인물 의상				
각시	초록삼회장저고리, 다홍치마, 횐 명주수건, 빨간 고무신	부네	노랑반회장저고리, 남색 치마, 빨간 고무신		
주지	바지, 저고리, 삼베자루	중	송낙, 바지, 저고리, 행전, 재색 장삼, 붉은 가사, 짚신, 염주		
 초랭이	벙거지, 바지, 저고리, 조끼, 쾌자, 행전, 미투리	이매	자주벙거지, 바지, 저고리, 녹색조끼, 행전, 미투리		
백정	평량자, 바지, 저고리, 짚신	양반	정자관, 바지, 저고리, 주의, 소색도포, 세조대, 부채, 미투리		
할미	흰 민저고리, 회색 치마, 흰 머리 수건, 짚신	선비	건, 바지, 저고리, 주의, 청색도포, 세조대, 낭선(신랑역), 담뱃대		

[표 4-1]⁸⁹⁾ 하회탈춤 등장인물 의상





〈그림 4-6〉⁹⁰⁾ 하회탈춤 부네 〈그림 4-7〉⁹¹⁾ 하회탈춤 선비(좌) 백정(우)

⁸⁹⁾ 최선. 강은주. 「한국 하회탈춤과 일본 노오무용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무용교육대회. 2005. p.15. 9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0831&mobile&categoryId =200000425 검색일: 2013.05.22.

⁹¹⁾ 위에 사이드 검색일: 2013.05.22.

	봉산탈춤 등장인물 의상				
상좌	흰 장삼, 붉은 가사, 긴한삼, 흰 고깔, 남색 치마,흰 버선, 흰 고무신	미얄	흰 치마, 저고리, 부채, 방울, 붉은 수건		
먹중 8개	저고리, 삼방이위에 장삼, 더그레 착용, 큰 방울을 무릎에 달고 버드나무가지를 허리뒤쪽에 쫒음	사당	흰 저고리, 푸른 치마		
소무	한삼달린 세동, 상의, 붉은 치마, 큰 비녀, 육환장	거시 6개	홀아비거사는 가마니나 거적을 말아서 둘러맴		
맏양반	흰 도포, 흰 바지, 흰 행전, 흰 부채, 지팡이, 정자관	노장중	흰색장삼 붉은 가사, 백팔염주, 송낙, 부채, 육환장		
취발이	붉은 원동, 녹색 소매단, 더그레, 붉은 바지, 방울, 가슴 등에 누린 놋쇠로 만든 광목을 담	신장수	검은 더그레, 흰 바지, 신짐속에 원숭이가 들었음		
말뚝이	검은 더그레 흰 바지, 행전, 윗대님, 채찍, 패랭이	덜머리집(용산삼개)	노란저고리, 붉은 치마		
원숭이	상하 홍색 옷	강남노인	흰 두루마기, 바지, 갓		
	맏양반과 같음	무당	붉은 치마, 남색쾌자, 검은 전입, 부채, 방울		
셋째 양반 종가집 도련님	흰 옷, 푸른 쾌자, 검은 복건, 행전, 부채	사자	사자머리에 몸뚱이를 달아 그 사람이 들어가고 꼬리는 따로 꽂아 뒷사람이 쥠, 붉은 혀는 앞사람이 따로 쥐고 내민다		
영감	흰 도포, 흰 바지, 행전, 개가죽관				

[표 4-2]92) 봉산탈춤 등장인물 의상

⁹²⁾ 김진이. 「京畿道地方의 산대놀이와 海西地方의 탈춤의 比較研究 : 楊州別山臺 놀이와 鳳山 탈춤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25.



⟨그림 4-8⟩93) 봉산탈춤 소무



〈그림 4-9〉94〉 봉산탈춤 사자



〈그림 4-10〉⁹⁵⁾ 봉산탈춤 먹중

⁹³⁾ http://blog.naver.com/ooiiuu1008?Redirect=Log&logNo=110138220614 검색일: 2013.05.26.

⁹⁴⁾ http://blog.naver.com/khjtwin?Redirect=Log&logNo=150148007479 검색일: 2013.05.9.

⁹⁵⁾ http://blog.naver.com/cube53?Redirect=Log&logNo=110041500406 검색일: 2013.05.26.

위에 비교분석 통해 한국의 화희탈춤와 봉산탈춤 의상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화회탈춤이나 봉산탈춤에서 양반의 성격을 표현기 위해서 복식과 도 포, 그리고 정자관을 같이 입었다. 정은 도고, 가사 등 을 입고 다른 역과 달 리 승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노파는 다 색깔이 수수한 저고리를 입었다. 이처럼 한국의 화회탈춤이나 봉산탈춤 특정한 역할들이 역할의 성격을 맞게 신분표시, 의사소통 등 본격적 특징을 일치한다.

둘째, 화회탈춤의 의상은 수수한 평상복 차림이며 친근감이 있다. 봉산탈춤 의상의 색채는 하회탈춤보다 상대적으로 화려하다.

2. 중국 가면극 의상의 전통적 특성

1) 나희(傩戏)의상의 특성

나희(傩戏)의 의상은 각 지역 문화에 따라 의상의 디자인, 색채, 문양, 재질 등 세밀한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의상 제작의 주제 때문에 각 지역의 나희 의상을 통용해도 된다. 이 공통된 주제는 바로 복을 빌고 병이나 재앙을 쫒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복식을 통해 신을 불러 청하고 귀신을 쫓는 의사소통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 나희 의상의 특징은 바로 명나라 시대의 의복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상의는 주나라 양식, 하의는 당송시대의 양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무대에서 흔히 볼 수있는 의상은 문복(文服), 무복(武服), 단복(短服)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표 4-3]하북 무안(河北 武安)나희의 문복을 예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류	내용		
망(蟒)	제왕, 장군과 재상 등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자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입었던 의복		
可(帔)	왕후장상, 고급 관리, 부자 신사 수재(秀才)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착용하던 의복		
습(褶)	문무관원, 평민 일상생활에서 입던 의복, 모든 역할 다 착용할 수 있음		

의(衣)	망(蟒), 피(帔),고(靠), 습(褶)을 제외한 그밖에 전용 의상
운견(云肩)	여성 많이 입던 의복

[표 4-3]%) 하북 무안(河北 武安)나희의 문복





〈그림 4-11〉97) 무안(武安) 나희 의상

〈그림 4-12〉98) 망(蟒)

2) 경극의 의상 특성

경극의 의상은 경극의 얼굴분장과 같이 행두(行頭), 혹은 희장(戲裝)이라 부르고 중국 명나라 때의 의복 형식으로부터 형성되어 그 기본이 되었다.

원색적으로 화려한 의상은 현실생활 속의 의상이 아니라 이미 예술화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연극 의상으로 옷, 투구, 시발, 수염, 야성의 머리 장신구 등 이 포함되어 있다.⁹⁹⁾

등장인물이 착용하는 의상은 그 인물이 시대나 계절에 맞는 의상을 입는

⁹⁶⁾ 呂媛媛.「儺戲服裝元素與現代服裝合計結合的探究」,河北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pp.21~22.

⁹⁷⁾ 위의 논문. p.27.

⁹⁸⁾ 위의 논문. p.27.

⁹⁹⁾ 안현순. 앞의 논문. p.25.

것이 아니라 부호화되는 정식성(程式性)은 의상의 형태, 색채, 문양 등 고도 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극중 인물의 신분, 지위, 특성, 연령에 따라 등장인 물들이 착용해야 할 의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극의상의 형식 분류 [표 4-4]과 같이 분류하였다.

종류	내용		
	제왕, 장군과 재상 등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자들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입었던 의복	남망 (男蟒)	남자 가입는 망(蟒)
		여망 (女蟒)	여자 가입는 망(蟒)
		노단망 (老旦蟒)	나이든 귀부인이 입는 망(蟒)
망(蟒) 혹은 마포(蟒袍)		기망 (旗蟒)	북방 소수민족 부녀의 신분 을 나타냄
	대금장포 (對襟 長袍)라고도 하며 왕후장상, 중간층 관리, 부자 신사 수 재(秀才)들과 그들의 가족들 이 비공식석 상에서 착용하던 의복	단룡피 (團龍帔)	황제 전용이며 전신에 단룡 (團龍) 열 마리가 수놓여 있음
		단봉피 (團鳳帔)	황후나 귀비 입었던 의복이 며 단봉(團鳳) 열 마리가 수 놓여 있음
		단룡봉피 (團龍鳳 帔)	황태후 역할이 입는다. 단 룡봉(團龍鳳) 도안을 넣음
72) (tuta)		단화피 (團花帔)	남자용-중급 관리, 연배가 높은 부신(富紳)계층 문인 의 신분을 나타냄 여자용 부유한 여성, 기혼녀 나 중년이상의 여성을 나타 냄
可(帔)		여화피 (女花帔)	비극적 성격을 가졌거나 고 통스러운 운명을 지닌 여자 역할을 나타냄

	청대(淸代) 장 관(將官)의 군 복이며 갑의 (甲衣)라고도 한다. 역 대갑 옷의 형태를 미화한 무대상 의 갑옷으로 둥근 깃과 좁 은 소매의 앞 자락은 발까지 닿음	경고 (硬靠)	남경고(男硬靠), 여경고(女硬 靠)로 나뉘며 등에 세모 깃 발 4개를 꽂음
		연고 (軟靠)	경고(硬靠)에서 깃발을 제 거한 상태임
고(靠)		개량고 (改良靠)	연고(軟靠)에 비해서 간단 하게 입을 수 있었으며 일 반 장령에만 적용됨
	도포(道袍)라고 칭하기도 하며 문무, 관원, 평 민 할 것 없이 모두 착용할 수 있음	남습자 (男褶子)	앞섶을 오른쪽으로 여미며 왼쪽 트임이 허리까지 오며 좌우 대칭을 이룸
습(褶) 혹은 습자(褶子)		여습자 (女褶子)	길이는 무릎까지 오고 좌우에 허리부터 아래로 트임이 있으며 품과 소매가 넓으며 수수(水袖)가대어져 있음
	망(蟒), 피(帔), 고(靠), 습(褶)	장의 (長衣)	개창(開氅:겉옷, 외투), 궁장 (宮裝:황비나 공주가 후궁의 편안한 장소에서 입던 예복), 고장(古裝: 여성의 곡선미를 부각시킨 현대인의 심미적 표준에 가까운 의상)으로 나 눔
	을 제외한 그 밖에 전용 의상 또는 보조 의상 을 통칭하는 의미	관의 (官衣)	중하급의 문관들이 입는 관 복(官服)
		전의 (箭衣)	무관이 착용하는 가벼운 융 복(戎服)
ol(-t-)		용투복장 (龍套服 裝)	용투가 나타내는 인물 집단 의 의상
의(衣) 		단의 (短衣)	사회의 하층민이 입거나 죄 수들이 입는 의복 혹은 어떤 인물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삼의 (三衣)	짧은 의상 수의(水衣:배우들의 몸에 바로 닿는 의복), 반오(胖襖:소매가 없는 솜저고리와 비슷함), 호령(護領:흰색의 띠로목을 감은 후 허리에 고정시킴), 채고(彩靠:비단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색의 바지)
		에 만든 나양한 책의 마시) 로 나눔

[표 4-4]100) 경극의상의 형식 분류

위에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나희와 경극 의상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나희나 경극의 의상 전부 중국 명나라 때의 생활 의복 형식을 그 기본으로 하고, 의상의 상징성과 엄격한 정식성(程式性)을 지니고 있다.

둘째, 경극 의상의 형태, 문양, 색채 등 전부 나희의 의상보다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이다.

셋째, 나희의 의상을 통해 신을 불러 청하고 귀신을 쫓는 의사소통의 의미 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경극의 의상 그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제 3 절 무대

1. 한국 가면극 무대의 전통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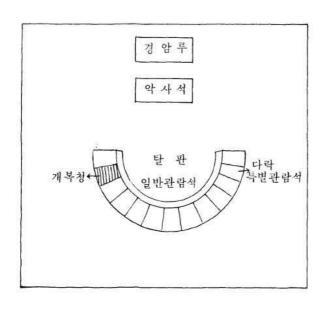
한국 가면극의 무대상의 특징은 관중이 많이 모이는 빈터로서 관중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무대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고 무대 장치는 아무것도 없으나 연기자들이 가면을 바꾸어 쓰고 옷을 갈아입고 악기 를 맡기기 위하 탈막이라는 개복청(改服廳)이 무대 한쪽에 있다.101)탈춤의 무 대는 다차원적인 지형과 관객의 전면적 시선이 가능케 한다. 즉, 사방이 관중 으로 둘러싸인 둥근 형태의 마당판은 연희자의 움직임에 따라 판의 지형이

¹⁰⁰⁾ 이선영. 「중국 경극분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 검보(臉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14~16.

¹⁰¹⁾ 이명진. 앞의 논문. p.25.

수시로 바뀌고, 움직임과 동선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이다.1020 봉산탈춤의 경우는 관중석을 반원형 다락으로 만들어 높이기도 한다. 이 반원 형 2층 관람석은 상인들이 다락에서 관중들에게 입장료대신 음식을 팔기 위 해서 만들어 졌다.

그리고 출연자들은 의상을 갖추고 공연장 주변에서 관객을 끌겸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구조적으로 이 길놀이는 별신굿 탈놀이에서 산주를 선두로 한무당, 광대, 관중의 신당순례에 대응된다고 하겠다. 즉 별신굿탈놀이에서 종교적인 퍼레이드는 후대 봉산탈춤에 와서는 관중을 모으기 위한 공연전의 퍼레이드化되었다. 또 그때의 무대는 특별한 배경이나 조명이 없이 공연은 야간에하는 것으므로 모락불과 자연의 달빛의 반사 이용하여 조명과 배경이 되었다.



〈그림 4-13〉103) 봉산탈춤 무대

2. 중국 가면극 무대의 전통적 특성

¹⁰²⁾ 채향순 .안병주. 「한국과 중국의 문화배경에 따른 가면무 비교연구: 탈춤과 경극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회, 2009, p.388.

¹⁰³⁾ 김진이. 「京畿道地方의 산대놀이와 海西地方의 탈춤의 比較研究 : 楊州別山臺 놀이와 鳳山 탈춤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10.

1) 나희 무대의 전통적 특성

나희는 지역적 특성이나 연출의 주제나 각 마을의 조건에 따라, 연출 형식 및 공연장소는 고정형태, 유동형태, 고정유동복합형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고정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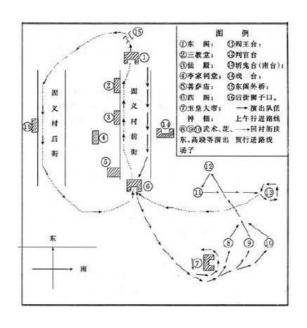
고정형태의 무대 주로 종족의 사당이나 집 앞의 마당 같은 곳에서 공연된다. 지희(地戲)의 경우는 농가의 마당에서 연출하고 가설무대는 특별한 장치가 없 이 관중들은 삼방에서 둘러싸고 구경한다. 최근에 극단은 간이 무대 설치기도 한다. 그리고 송(宋)대후에 중원지방 또 한 가지 고정형태의 무대는 절 안에 불당 앞에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②유동형태

유동형태의 무대는 개인의 집안에서 혹은 집 앞의 관장이나 타락 마당 같은 곳에서 공연하다. 예를 들어 타야호(打夜胡)처럼 북을 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돈을 구걸한다. 현대에 와서 타야호(打夜胡)는 마을의 관중들이 더 평하고 재미있게 불 수 있게 하기 위해 연희자는 고대보다 몇 명 더 증가하였다.

③고정유동복합형태

고정유동복합형태의 무대는 연희자들 고정한 무대에서 연희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무대에서 내리고 마을의 어느 거리에서 연희하기도 하는 연희형식의 무대다. 예를 들어 하북 무안 (河北武安) 나희 연출 로드 맵.〈그림 4-14〉



〈그림 4-14〉104) 하북 무안 나희 연출 로드 맵

2) 경극 무대의 전통적 특성

정극의 무대는 초창기에는 야외에서 대(臺)를 만들어 관객들이 삼방을 들러서 관극하였고, 다음에는 식당 경 찻집인 건물에서 실내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 무대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무대 후면에 대장자(大帳子)라고 불리는 수를놓은 큰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그 양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것 역시 헝겊으로 오른쪽에 상장문(上場門), 왼쪽에는 하장문(下場門)이라고 쓰여 있다. 무대중앙에는 술이 달린 등이 드리워져 있고, 큰 탁자와 두 개의 의자가 다양하게소도구로 쓰일 뿐 무대 장치는 거의 없는 셈이다.105) 그 대신에 경극에서는무대 운영에 있어 많은 무대약속과 상징적인 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허구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규율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사실상 무대에는 아무 것도 없지만, 배우의 몸짓과 손짓 그리고 걸음걸이를통해 산을 오르거나 말을 타고 천군만마와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수만, 수천 번 반주된 곡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한다. 비합리적이라

¹⁰⁴⁾ 呂媛媛. 앞의 논문. p.15.

¹⁰⁵⁾ 장한기. 연극사. 신아사, 1988. p.333.

고 생각되는 무대 운영 방식이. 오늘날의 경극을 있게 한 것이다. 106) 이처럼 모든 무대소품들은 춤을 추듯 과장되고 상적인 배우의 연기와 하나가 되어 중국연극 특유의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서는 필수적이다.

위의 비교분석 통해 한국과 중국 가면극 무대 전통적 유사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무대 모두 야외에서 설치 할 수 있고 무대 조 명 등 특별한 장치가 없는 것이 유사하다.

둘째, 한국 가면극 사방의 관중으로 둘러싸여 전면적 구경이 가능하지만 중국 가면극 무대는 관객들이 삼방 구경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중국 나희는 고정유동복합형태로 무대가 설치되어있어서 한국가면극이나 중국 경극 무대의 설치 형식보다 더 다양하다.

¹⁰⁶) 공도. 「중국경극의 국제를 위한 캐릭터 개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1

제 5 장 비교분석을 통한 분장 표현기법 제안의 관한 연구 사례

제 1 절 한국 가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1. 한국 하회가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작품 1】 부네가면

부네는 중마당에서 파계승과 사랑을 나누는 여인이며 양반, 선비마당에서 양반, 선비와 소첩역을 맡은 젊은 과부, 기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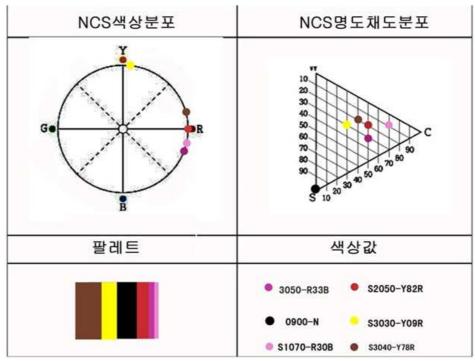
【작품 분석】

가름한 얼굴, 반달 같은 눈썹, 오뚝한 코, 붉게 바르는 입술 현대에 와서도 미인이라고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또 가면극에서 기생의 고혹한 성격에 걸맞게 표현하기 위해 눈은 핑크색 섀도우로 그라데이션 하고 이마와 양뺨에 진한 빨간색 곤지를 찍었다. 이마, 콧등, 턱 밑에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아름다운 입체감 있는 얼굴로 분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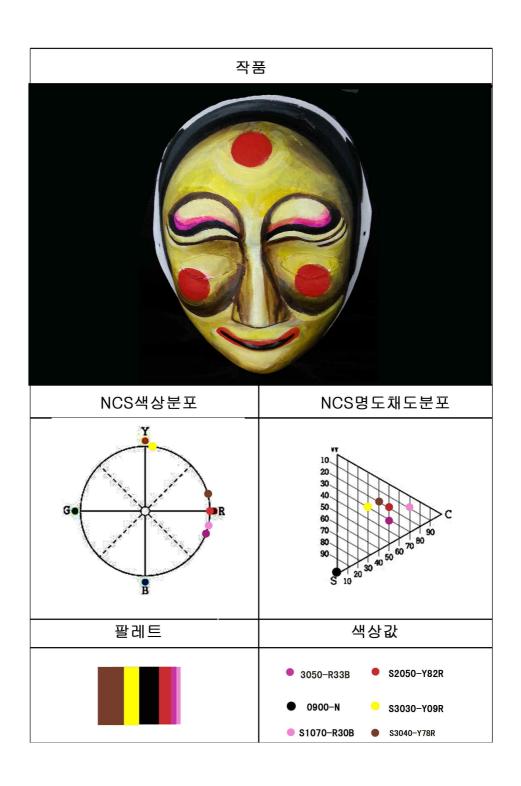


[표 5-1] 한국 하회 부네가면 작품 모티브





[표 5-2] 한국 하회 부네가면 작품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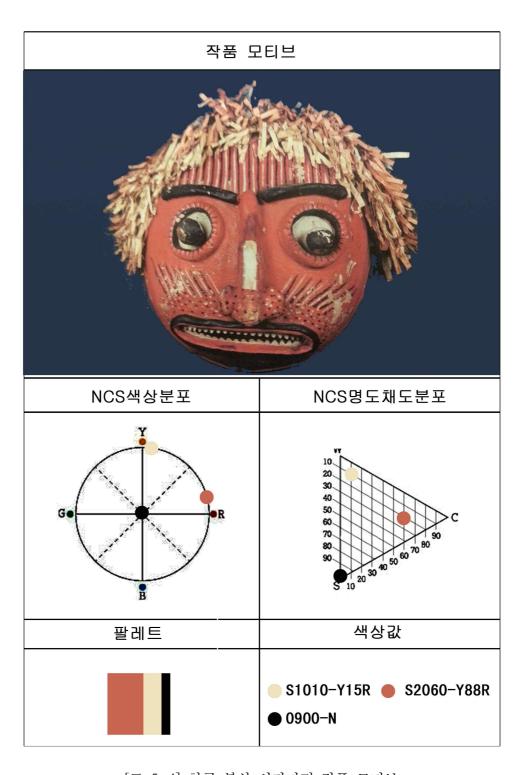
[표 5-3] 한국 하회 부네가면 작품제작

2. 한국 봉산가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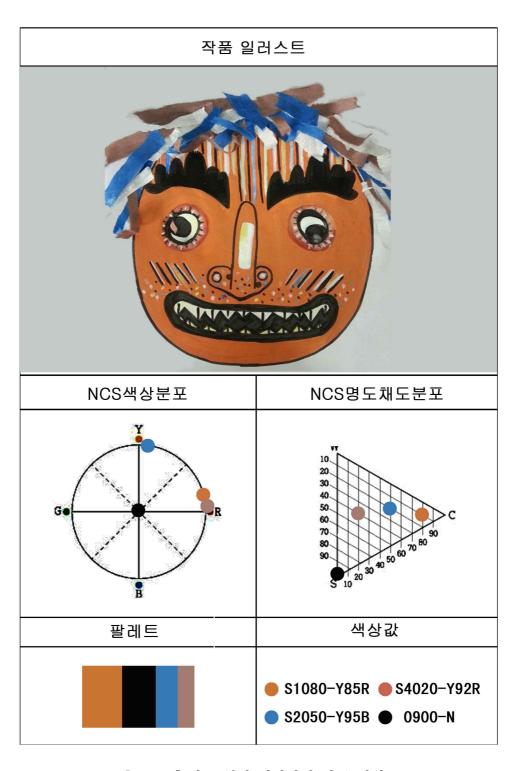
【작품 1】 봉산 사자가면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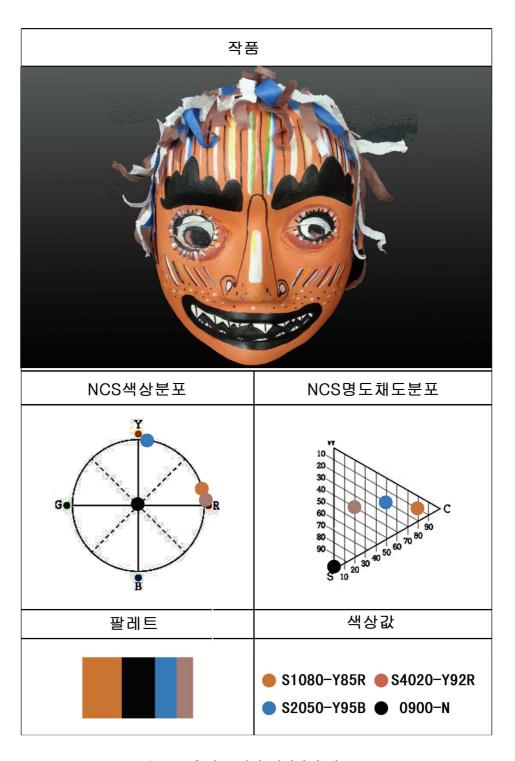
한국 봉산탈춤의 배역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물도 등장한다. 가면의 바탕은 눈에 뛰는 오렌지색을 칠하였고, 이마나 양 뺨에 번갈아 칠하는 선과 가발에는 선명한 고명도고채도 색깔을 썼다. 사자역은 원래 봉산탈춤에서귀엽게 나오는 역인데 여린 눈썹과 이빨을 더 무섭게 보이게 더욱 거칠게 과장하였으며 과장을 하였으며 눈은 사납게 표현하기 위해서 눈과 코가 돌출돼보이도록 하고 속눈썹까지 분장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사자 가면은 봉산탈춤에서 쓰는 사자보다 더 명랑하고 무섭게 보이도록 가면에 디자인 하였다.



[표 5-4] 한국 봉산 사자가면 작품 모티브



[표 5-5] 한국 봉산 사자가면 작품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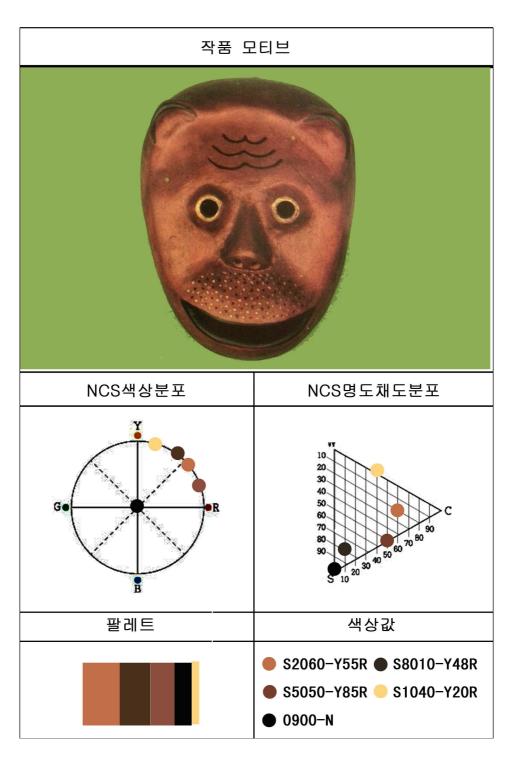


[표 5-5] 한국 봉산 사자가면 작품

【작품 2】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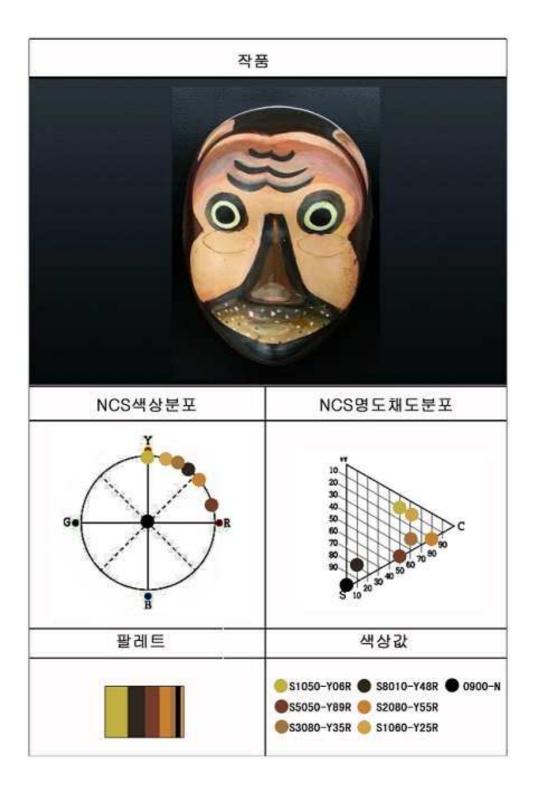
NCS 색채분포표에서 보면 디자인한 원숭이는 봉산탈춤에서 나오는 원숭이 보다 색채를 더 풍부하게 써서 진실함이 들도록 하였다. 납작한 코, 두드러진 입, 동그랗게 나오는 눈알을 더 사실적으로 분장을 했다. 또 코밑에 귀여운 흰 점을 많이 쪘다.



[표 5-7] 한국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 모티브



[표 5-8] 한국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 일러스트



[표 5-9] 한국 봉산 원숭이가면 작품 제작

제 2 절 중국 가면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1. 중국 나면(儺面)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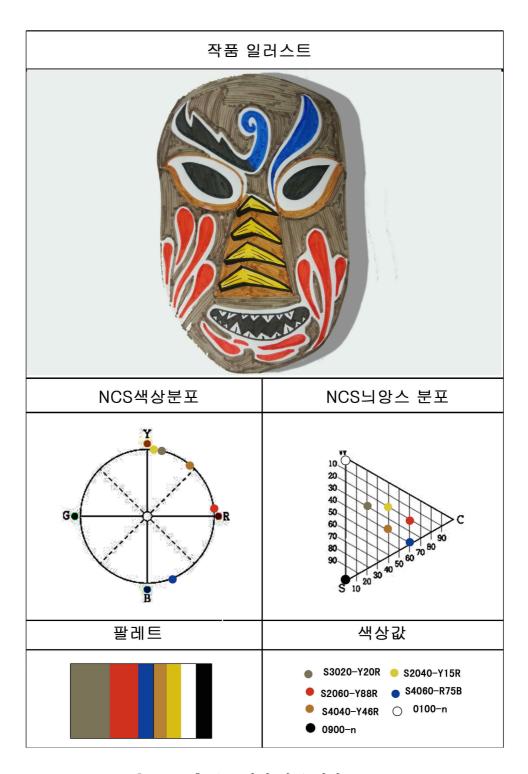
중국나희에서 나오는 철제나면이다. 이 나면의 제작 재료는 철이라서 전 얼굴은 무채색을 부각 시키는 얼굴이다. 이 가면의 특징은 이마부터 턱까지 주름이 많이 조각되었다는 것이다.

【작품 분석】

나면을 착용하고 귀신이나 역병을 몰아내야 하는 목적에 맞게 얼굴의 눈, 눈썹, 코, 이빨, 주름까지 더 무섭게 보이는 디자인을 하였다. 눈은 크며 위에 올라가는 아이라인, 칼처럼 생기 눈썹, 툭 나오는 코 또 거친 이빨, 사람에게 무섭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특히 가면의 바탕색을 나무색으로 선정하였다.



[표 5-10] 중국 나면 작품 모티브



[표 5-11] 중국 나면 작품 일러스트



[표 5-12] 중국 나면 작품 제작

2. 중국 경극의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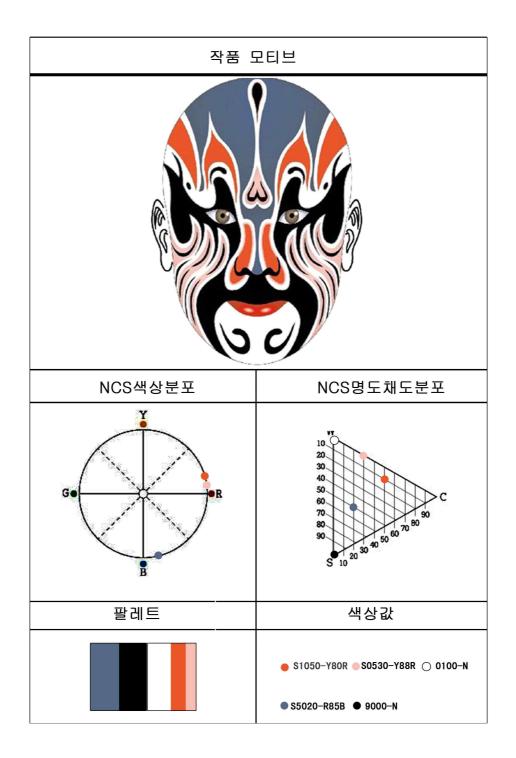
【작품 2】

중국 경극 〈취락양(取洛陽)〉중에 나오는 마무(馬武)의 '청수화검(青碎花 臉)'검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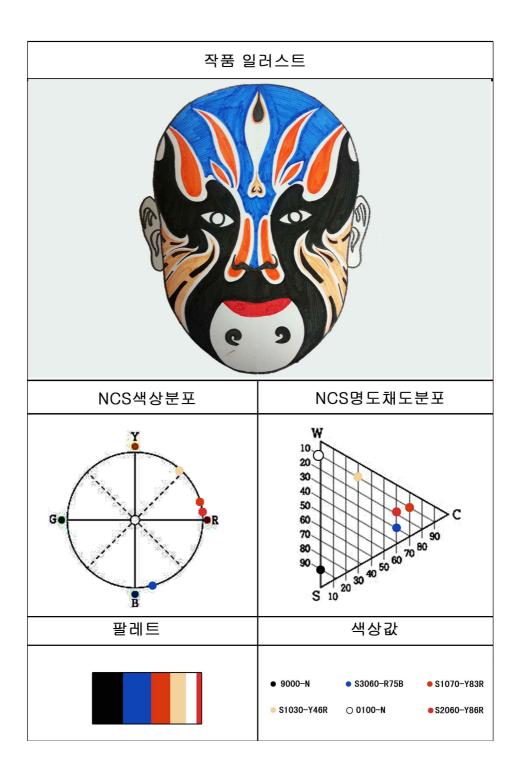
【작품 분석】

검보에서 푸른색은 고집 센 사람을 표현하는 색상이다. 그러한 성격의 푸른 색을 기본색으로 하여 이마에는 꽃이 피는 모양을 그렸고, 미소 띤 붉은 입술 과 양 뺨에는 살색을 바탕색으로 하고 선명한 흑선으로 분장을 하였다.

경극의 검보는 각자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 디자인처럼 청수화검의 큰 틀을 흔들지 않고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글로벌 세상에서 국가의 전통 계승하고 싶으면 규정한 형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5-13] 중국 경극 마무 겁보 작품 모티브



[표 5-14] 중국 경극 마무 검보 작품 일러스트



[표 5-15] 중국 경극 마무 검보 작품 제작

제 3 절 한국과 중국의 가면을 결합한 분장 표현기법 제안 및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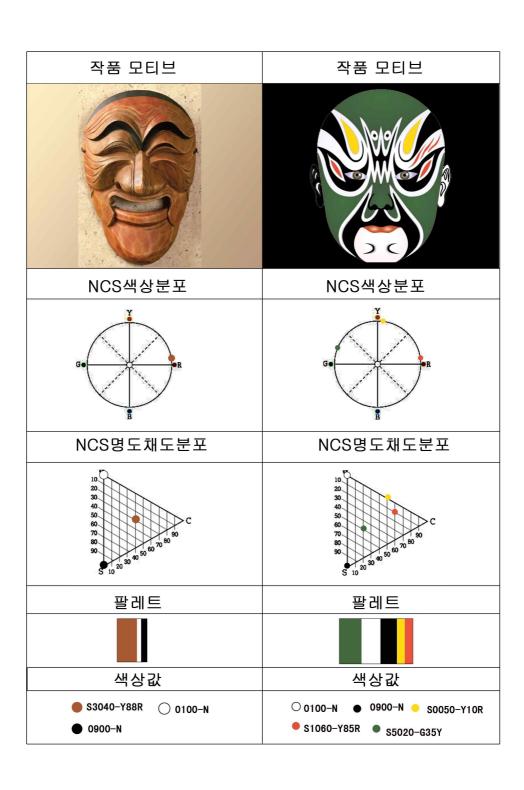
【작품 1】

왼쪽은 중국 경극 검보에서 나오는 주온(朱溫) 오른쪽은 한국 하회탈춤에 서 등장한 양반탈이다.

【작품 분석】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가면극은 형성 초부터 지금까지 오랜 동안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류도 지속되고 있는데 각 나라의 가면극에서 자기나라의 것만 나오고 있다. 양 국의 가면을 한 가면에서 표현하고 가장 동양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 가면이 창출되도록 이 작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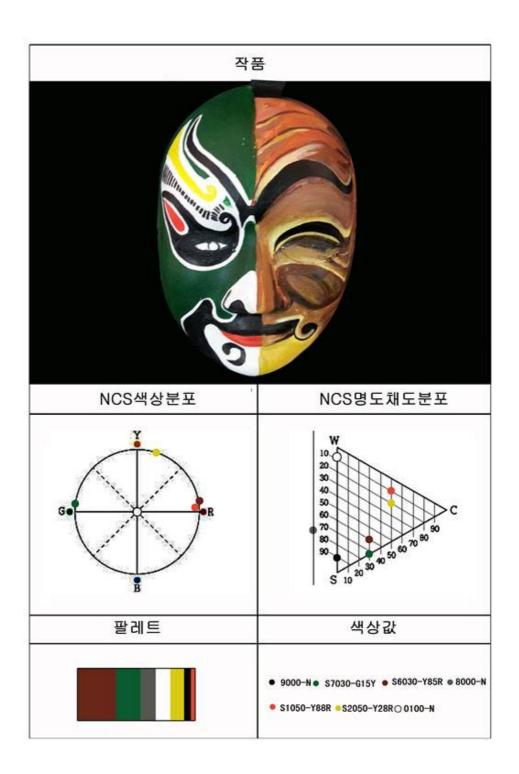
경극 검보에서 녹색은 포악하고 용맹한 성격을 지니는 사람에게 분장을 하는 색깔이다. 나무바탕색의 있는 오른쪽 웃고 있는 양반과 대비가 된다. 물론 양반의 여유가 있고 웃는 모습의 풍자가 되는 비웃음을 당해도 얼굴에서 대단히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지게 하였고 주름살도 일부로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전 얼굴의 선도 부드럽고 표정도 여유가 있고 웃는 표정이다. 반대로 왼쪽 경극 검보의 눈썹도 사납게 이마까지 위로 분장시키고 안와(眼窩)도 포악하게 가는 곡선으로 연출을 하였다.



[표 5-16] 한국 화회 양반가면과 중국 경극 검보 주온 작품 모티브



[표 5-17] 한국 화회 양반가면과 중국 경극 검보 주온 작품 일러스트



[표 5-18] 한국 화회 양반가면과 중국 경극 검보 주온 결합한 작품제작

【작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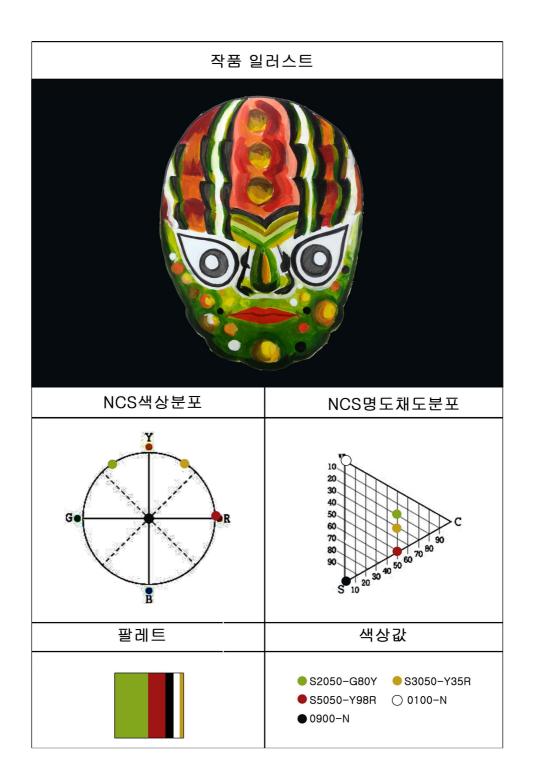
왼쪽은 중국 경극에서 나오는 상형검(象形臉)검보 공선(孔宣)이다. 오른쪽 은 한국 봉산탈춤에서 나오는 취발이이다.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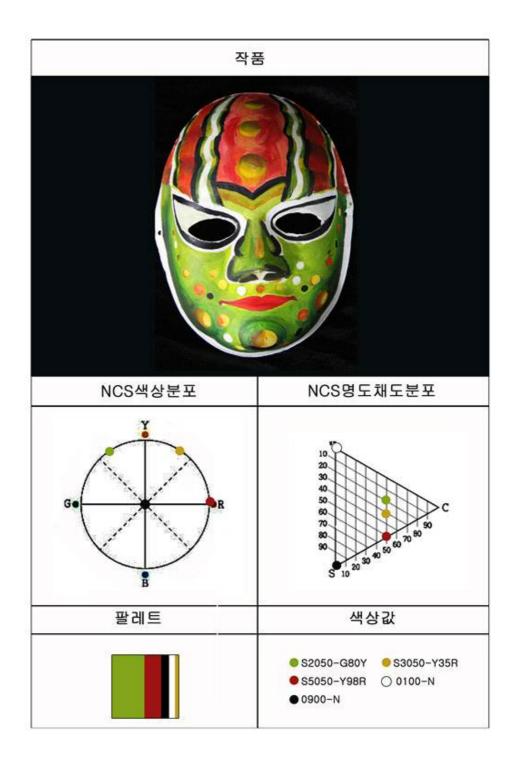
한국의 가면극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역을 쓰는 가면 사람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나오게 하는 가면을 모티브를 선정한 이 가면은 한국 다른 지방의 가면보다 조형이 대담하게 창출 되었다. 그리고 중국 경극에서 나오는 공선가면의 색깔이 화려하면서도 입술부분이 봉산 취발이와 비슷한 오렌지색을 써서화려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한국 가면극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취발이와 중국 경극에서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공산을 결합 시켜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표 5-19] 중국 경극 검보 공선과 한국 봉산 취발이가면 작품 모티브



[표 5-20] 중국 경극 검보 공선과 한국 봉산 취발이가면 작품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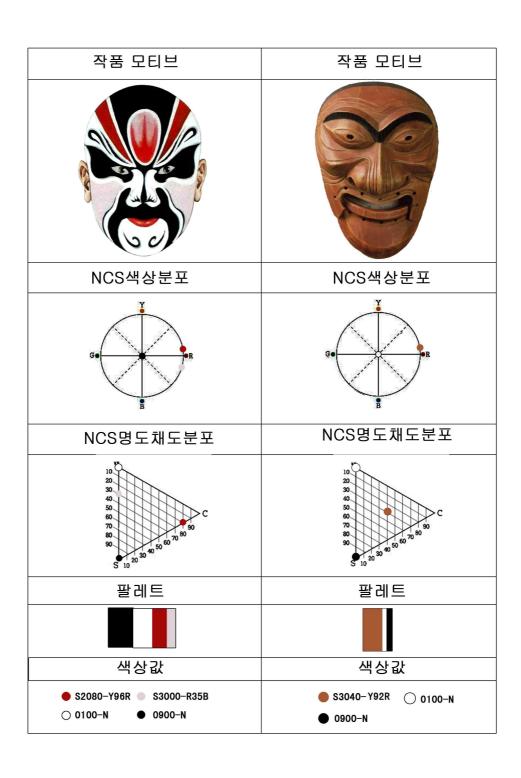
[표 5-21] 중국 경극 검보 공선 색깔 응용한 한국 봉산 취발이가면 작품제작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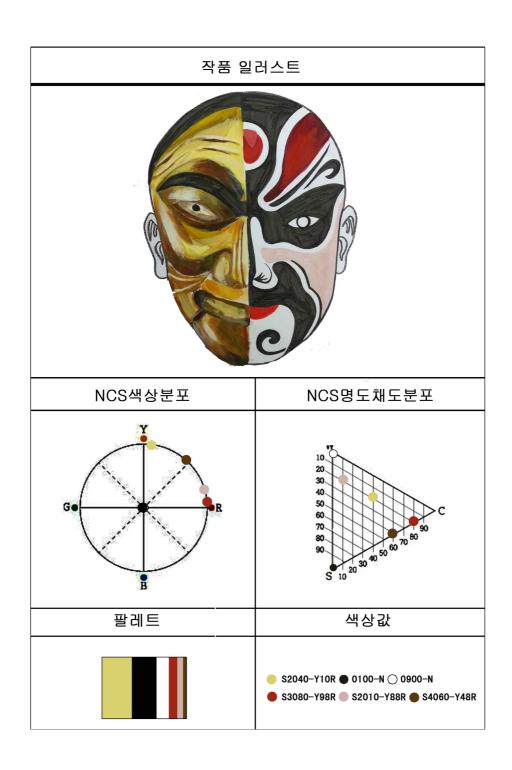
왼쪽은 한국 하회탈춤에서 등장한 선비이고 오른쪽은 중국 경극에서 나오 는 검보 이규(李逵)이다.

【작품 분석】

두 모티브는 NCS색채분부에서 보면 왼쪽의 중국 검보의 명도나 채도가 다른 것보다 낮은 편이다. 오른쪽의 한국 하회가면은 무제가면이라서 명도나 채도도 수수한 편이다. 또 얼굴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하회 선비탈은 고대선비의 사실적인 얼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 이규의 검보는 추상적이고 비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뚜렷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면을 섞어서 비대칭의 비뚤어진 가면을 창출하였다.



[표 5-22] 중국 경극 검보 이규와 한국 하회 선비가면 작품 모티브



[표 5-23] 중국 경극 검보 이규와 한국 하회 선비가면 작품 일러스트



[표 5-24] 중국 경극 검보 이규와 한국 하회 선비가면 결합한 가면 작품 제작

제 6 장 결론

가면극은 연희자들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무속 놀이이다. 무(巫)들이역사변고, 액,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기위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가면극의 기원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공통적인 배경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두 나라의 가면극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깊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한국과 중국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한 가면 분장 표현기법 제안을 창출하고 전통문화를 재해석하며 현대적 분장을 발전 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까지 알려져 있는 한국 하회탈춤과 황해도 지역 최고의 한국 봉산탈춤을 선택하였고, 중국 3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례, 나희 및 중의학과 중국화와 더불어 중국의 3대 국수(國粹)로 불리는 경극을 선택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4가지 전통 가면극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하회탈춤과 봉산탈춤의 연희자들은 가면을 쓰고 주로 불교의 귀의한 것, 양반에 대한 모욕, 파계승에 대한 풍자, 남녀의 갈등 등에 관한 것을 표현하였다. 가면의 조형속 분장에서 특정계급 내부의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선택되어 한 인물 속에 압축됨으로써 강력하게 전형화 되었다. 그래서 한국 가면극에서 역을 쓰는 가면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분장을 하였다.

중국의 나희에서 크게 정신가면(正神假面), 흉신가면(凶神假面), 세속인물가면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정신가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친밀감으로 줄수 있는 자애로운 눈썹과 미소를 띤 사실적 분장을 한다. 반면에 흉신 가면들은 대체로 사람에게 사납고 위험이 있는 용맹스러운 느낌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면들이다. 보통 머리 위에 뿔 한, 두 개 나오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입밖으로 삐져나오고 눈썹은 화염상을 부각시키고 눈알도 튀어 나온 모습으로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좌우 비대칭의 바보스러운 축각 세속인물 가면과 사

실대로 나오는 정각 가면은 서로 대조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신가면과 세속인물 가면은 웃는 가면(골계면)과 흉신 가면의 무서운 가면(분노면)은 서로 분화되어 있다.

경극은 생(生), 단(旦), 정(淨), 축(丑) 4대 행당(行當) 남자 배역의 생과 여자 배역의 단하는 '미화화장', 성격파 배역 정과 어릿광대 배역 축하는 '성격 분장'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였고 특히 정, 축의 역할 쓰는 검보에 나타나는 설명성, 성장성, 과장성을 설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색채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색은 모두 고대 중국에서 발생된 음양오행설을 따르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 극에서 사용하는 색 채도가 높은 원색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 가면극에 서 사용하는 색은 중국 경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색상을 사용 하였으며 채도가 낮은 소박한 자연색을 많이 사용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복식분석 결과는 한국이나 중국의 가면극 복식의 기능 다 동장인물의 성격, 계급, 인격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유사성이었다는 것이다. 단 화회탈춤의 의상은 수수한 평상복 차림이며 친근감이 있다. 한국 봉산탈춤 의상의 색채는 하회탈춤보다 상대적으로 화려하다. 중국경극 의상의 형태, 문양, 색채 등 전부 나희의 의상보다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이다. 중국 나희의 의상을 통해 신을 불러 청하고 귀신을 쫓는 의사소통의의미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가면극의 의상 그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

넷째, 한국과 중국 가면극의 무대의 분석 결과는 한국이나 중국의 가면극의 무대다 야외에서 설치할 수 있고 무대 조명 등 특별한 장치 없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가면극은 사방의 관중으로 둘러싸서 전면적인 구경이 가 능하지만 중국 가면극 무대는 관객들이 삼방 구경 가능하다. 또 중국 나희는 고정유동복합형태로 설치한 무대가 있어서 한국가면극이나 중국 경극 무대 설치한 형식보다 더 다양하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가면극의 전통적 특성 분석을 통한 가면분장 표현기법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향 제안을 창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전통 가면을 재해석하여 규정한 분장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통

의 현대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살아있는 문화로 제안을 하였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 가면극에서 나오는 전통가면의 다양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확대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명군. 「중국 한족의 나희와 한국 가면극의 벽사 진경 영상의 비교」.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강은주. 「한국 하회탈과 일본 노오무용에 관한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4
- 김세영 외 4인. 『연극의 이해』. 서울: 새문사, 2002
- 김수욱. 「한국 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 표현에 관한 연구」. 조 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지언. 「한·중 전통극에서의 색채문화비교 -오방색을 중심으로-」.한복문 화학회, 2008
- 김진이. ×京畿道地方의 산대놀이와 海西地方의 탈춤의 比較研究: 楊州別 山臺 놀이와 鳳山 탈춤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류위. 「중국 경극분장의 예술적 특징과 시각적 요소를 응용한 문화상품 디 자인에 관한 연구」.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진태. 「중국 귀주의 나당희 가면 연구」. 한국 중국 희곡 학회, 1998
- 심우성. 『탈』. 서울 : 대원사, 2000
- 안현순. 「중국 경극의 검보 연구 -색채상징과 메이크업 기법을 중심으로 1.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안현순. 김미선. 「경극(京劇) 안면분장(顔面扮裝)의 유형분석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대학 학술저널, 1999
- 이나영. 「한국의 전통의 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두현. 『한국 가면극』. 서울 :서울대학교, 1994
- ____b. 『한국의 가면극』. 서울 : 일지사, 1979 ____. 『한국의 가면극』. 서울 : 한국가면극 연구희, 1973

- 이명진. 「봉산탈춤과 가무기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선영. 「중국 경극분장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 검보(瞼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은주. 「하회탈춤과 하회탈춤의 미학연구」. 사계절, 1999
- 전경욱. 「한국 가면극의 계통을 보는 시각 재론」. 한국민속학회, 2009
- ____.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서울 : 일화당, 1998
- ____. 『탈놀이의 형성에 끼친 나례의 영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 1995
- 최선. 강은주. 「한국 하회탈춤과 일본 노오무용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무용 교육대회, 2005
- 채향순. 안병주. 「한국과 중국의 문화배경에 따른 가면무 비교연구: 탈춤과 경극을 중심으로」. 한국 체육철 학회, 2009

2. 국외문헌

呂媛媛.「儺戲服裝元素與現代服裝合計結合的探究」. 河北科技大學 碩士學 位論文, 2011

盛巽昌. 馮懿有. 張錫昌. 「京劇藝術·臉譜」. 2002

赵梦林. 「中國京劇臉譜」. 2001

朱鈺. 「土家族儺戲面具藝術研究」. 昆明理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3. 인터넷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385&docId=1730380&mobile &categoryId=4385

http://wy.seezy.com/pic_show.asp?ID=77&Page=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60831&m obile&categoryId=20000042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38&docId=532037&mobile&categoryId=1638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 m&ie=utf8&query=%ED%95%98%ED%9A%8C%EB%8F%99

http://blog.naver.com/ooiiuu1008?Redirect=Log&logNo=110138220614

http://blog.naver.com/cube53?Redirect=Log&logNo=110041500406

http://blog.naver.com/cube53?Redirect=Log&logNo=110041500406

ABSTRACT

A Study on mask Make-up techniqu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asque in both Korea and China

Ming-Ha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Masque is a kind of shamanism game where actors dance with masks on. This study focused o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Hahwi masque, Bongsan masque, Nare, Nuo Opera and Beijing Opera. Hahwi masque is famous even in the western countries while Bongsan masque is the best well–known one in Hwanghae. In addition, Nare dance is developed from Nuo, which is an ancient anniversary with a history of 3500 years in China and Beijing Opera is one of the three most quintessence in Chinese cure.

Korea is a neighboring county of China, it's a long term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s established. Both of these two countries have a long developing history of masque with the similar orig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masque in both Korea and China with each other.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studies focus on masque. However, researches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re quite rare. What's more, the study on the comparison of mask make-up techniqu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s also quite rare.

Consequently based on the necessarily, it was firstly, investigate the previous research from both domestic and overseas materials. Then, studying the overall historical origin of Korean and Chinese Masque and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anging from the color of mask, cloth, platform, etc. After that, this research shows the mask make—up design as the formative arts.

So this research conclude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ors in Hahwi masque and Bongsan masque generally dance for representing a converting to Buddhism, a denouncement of the ruling class, a satire of apostate monk, and a contradiction between men and women, etc. It can reflect the character of the role in masque via mask make—up better than without it.

It is natural that the basic dress of Chinese Nuo opera's "Is god persona" can give people close feeling. On the contrary, an evil persona gives people fierce and dangerous feeling. Also, the shaft, which is a clown of left-right asymmetry, reflects the secular characters.

Beijing Opera has four major characters called sheng, dan, jing, chou. Sheng is the positive male role, dan is the positive female role, and they're with a beautification make-up; while jing is a supporting male role with a striking character and chou is the clown or a negative character, and they are with a wild nature make-up.

Secondl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nd Chinese masque color, both of their traditional color come from ancient China according to the theory of Yin, Yang, and Five Elements.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a nature color was mostly preferred, but in China, people use color expression to show deeper saturation.

Thirdly, concluded from th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masque costume that, both costumes have the similar function to indicate the character, class and personality of the role. Costumes of Hahwi masque normally are simple dress of everyday life, while costumes of Bongsan masque are comparably finery. Compare with Chinese Nuo Opera, costumes of Beijing Opera are more artistic, not only on form, but also on dermatoglyphic pattern and colors, etc. However, in Chinese Nuo Opera, costume can be considered a method to communicate with gods and to expel ghost.

Fourthly, according to Korean and Chinese masque stage analysis, both of them can be performed outdoors, can be without light, or without special devices, etc. Korean masque generally used multi-dimensional terrain, and can be watched from four directions around. However, Chinese Beijing Opera can only be watched from three directions. Moreover, Chinese Nuo Opera has abundant styles with fixed stage of flow composite form, compared with the stages of Korean masque and Chinese Beijing Opera.

Fifthly, through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nalysis, this research shows the mask make-up design as the formative arts can be used

[keyword]: masque, Hahwi masque, Bongsan masque, Nare, Nuo Opera, Beijing Opera, make-up expressive technique, color, dress, stage, make-up design